

野 '담배·법인세 동반인상' 빅딜 추진

'부자감세 철회'와 연계 법안처리...내부 시나리오 마련
사실상 인상안 인정... "서민증세 반대" 명분 뒤집어

정부의 담배세 인상 계획을 강력 비판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적으로는 법인세 인상 법안과 담배세 인상안을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증세라 안 된다면 담배세 인상안을, 당이 요구해 온 '부자감세 철회' 법안과 '바꿔 먹기'하겠다는 것이다.

이투데이가 22일 입수한 '담배세 인상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새정치연합 내부 문건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담배세 인상이 '세수 부족을 매우 기 위한 서민증세'이어서 반대한다는 기조를 세우면서도 적정 시점에 추진할 3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 문건은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가 만들었으며, 정책위는 이를 바탕으로 담배세 인상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안전행정부,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과 협의해 단일대오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우선 정부의 인상안을 일부 수용하되, 당의 중요 추진 정책과 일괄 타결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정책적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 시절 깎아놓은 법인세를 올리는 조건으로 담배세 인상을 논의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더 이상 타결하지 않고 정부-여당의 담배세 인상안이 12월 1일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다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다. 서민증세 반대 방침을 유지하면서 담배세 인상 처리를 사실상 '방조'해 흡연자를 중심으로 쏟아질 국민적

비난을 모두 정부-여당에 떠넘기겠다는 속셈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정부안에서 담배세 인상폭을 20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낮추고, 신설될 개별소비세의 비중은 줄이되 지방세 비중을 늘리도록 추진하는 방안이냐는 가급적 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대응 방안들의 기저엔 담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우

새정치연합의 담배세 인상 대응 시나리오

- 1안 정부 인상안 일부 수용, 당의 중요정책과 일괄 타결되도록 정부여당과 협의
- 2안 인상안에 타협 않고 12월1일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 자동 부의되는 것 검토
- 3안 담배세 인상의 폭과 구성 항목간 비중 변경 추진

*1안 우선 추진, 부의하면 경우 2안 선택, 3안은 가급적 택하지 않음

리나라 담배값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데다 담배세를 올린 지 10년이나 지났고, 지방세수가 부족해 어느 정도의 인

상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단은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담배세 인상을 '부자감세 철회'와 연계 처리함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얻는 안을 추진키로 정한 셈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정치적 부담이 되지만 어차피 해야 할 담배세 인상을 이번 정권이 처리하도록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기후변화 막기에 동참합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에서 반기문(오른쪽 두 번째)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거리행진에 참가했다. 행사에는 앨 고어(왼쪽 두 번째) 전 미국 부통령, 빌 더블라이즈 뉴욕시장 등과 함께 시민 10만명이 참여했다. 23일에는 반 총장이 제정한 유엔 기후정상회의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다.

현대차 '통큰 베풀'에 땅을 친 조계종



현대차가 10조5500억원이라는 통큰 베풀기로 한전 부지를 품게 된 것과 관련, 영종하게 조계종이 세인의 입방아 대상이 되고 있다. 확실한 '금사라기'로 재확인된 한전 부지가 원래 봉은사(奉恩寺) 소유였는데, 조계종단이 이 땅을 1970년 정부에 '할값(?)'으로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 때문에 봉은사가 베풀은 보우대사, 서산대사, 사명대사 등 역사적 승려들이 저승에서 땅을 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1969년 조계종 중앙종회는 심각한 내홍(內訌)을 겪었다.

종단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1970년 3.3㎡당 5300원에 한전부지 정부에 팔았는데 44년만에 8만2500배 뛰어

지금의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 터를 정부에 파느냐, 미느냐 문제를 두고서였다. 당시 한전 부지는 봉은사 소유의 땅이었다. 조계종은 옛 총무원 건물인 불교회관 건립과 동국대에 필요한 공무원교육원 매입을 위해 돈이 필요하

자 종단의 유휴지를 매각하려 했다. 이 유휴지가 지금의 한전 부지다. 반대로 원교육원 매입을 위해 돈이 필요하

다. 당시 조계종은 한전 부지 땅을 평당 5300원씩, 10만평(33만578㎡)을 총 5억3000만원에 정부에 매각했다. 이는 1970년도 강남 주변 땅값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때 서초를 비롯한 강남 인근의 땅 거래가는 평당 4000원~5000원 정도였다.

당시 평당 5300원과 지금 현대차그룹의 통 큰 베풀인 평당 4억3879만원

은 무려 8만2500배가 넘는 차이다. 당시 물가와 단순 비교를 해 보더라도 천문학적인 차이다.

1970년 담배 한 갑은 10원, 시내버스 요금 10원, 택시비 60원, 최고기 1근 375원, 돼지고기 1근 208원 등 생필품 가격을 지금의 물가와 비교하면 최소 30배, 최고 250배 정도 차이에 불과하다.

조계종 관계자는 "불교 역사에서 의미 있는 곳이 정부에 할값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천문학적 금액에 팔리는 걸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영관 기자 kwan@

재벌총수 등 신고없이 거액 외화 반입

신격호 회장 등 20여명 522억원 규모...금융당국, 탈세 의혹 정밀검사 착수

금융당국이 5000만 달러(약 522억원) 규모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에 들여 온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등 재벌총수를 포함한 자산가 20여명에 대한 정밀 검사에 착수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들이 들여 온 국내 반입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파악 중이며, 비자금, 세금 탈루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 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 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최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넘겨 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외국환 당사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감독원에 있다.

조사 대상에 오른 명단에는 신격호 회장, 이수영 회장을 비롯해 대아그룹 황인찬 회장, 경신 이승관 사장,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 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통상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외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들여 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들은 사전에 해외 투자 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자금을 투자수익금, 임금 등으로 출처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금융원은 반입자금 일부가 비자금이나 탈루 소득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높

게 보고, 검사 결과 불법 외화 유출 등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들 의심 거래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국내에 반입된 거액 가운데 일부를 표본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신격호 회장은 900만 달러가량을 송금받은 게 문제로 지적됐다. 신 회장 측은 영수확인서에서 이 자금을 과거 비거주자 신분으로 투자한 외국 회사 수익금이라고 해명했다.

황인찬 회장과 이수영 회장, 김호연 회장의 자녀, 이승관 사장 등도 각각 100만~150만 달러를 국내로 들여 온 점이 지적됐다. 김호연 회장의 자녀는 부동산 매각 대금 회수, 이승관 사장은 해외 예금계좌 인출액이라고 각각 소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아 기자 kakim@

Biz 일요일 19~25면

커버스토리 인재경영 '사람이 미래다'



김승훈 회장 ▶ 김기곤 회장 ▶ 16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Graphic NEWS

TV, 7년 쓰셨나요? 그럼 바꿀 때 됐네

전자제품 기대수명

- ※출처: 미국전행협회(CEA)
- 평판 TV 7.4년
- 디지탈 카메라 6.5년
- 데스크톱 컴퓨터 5.9년
- 스마트폰 4.6년

미국 소비자사에서 전자제품에 대한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은 TV가 가장 길고 스마트폰이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가전협회(CEA)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가전과 모바일을 포함한 전자제품의 기대수명을 조사한 결과 평판TV가 7.4년, 스마트폰은 4.6년으로 나타났다.

김나은 기자 better8@

금융지주 회장 일당이면 88세대 15명 월급

4대 금융지주 회장 일당 1300만원

※출처: 금융권

상반기 보수 평균 15.9억

※일당-홍보수/생반기 중 공휴일 제외 12일

금융지주 회장	보수	일당
하영구(씨티금융)	23억8000만원	2000만원
김정태(하나금융)	17억1000만원	1400만원
한동우(신한금융)	12억9000만원	1100만원
임영록(KB금융)	10억원	800만원

※출처: 금융권

금융지주 회장의 하루 평균 수입이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한국씨티 등 4대 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평균 16억원을 벌었다.

금융지주 사외이사 1인당 평균 보수는 KB금융 1억1500만원, 씨티 1억700만원, 하나 6100만원, 신한 5400만원 순이다.

신태현 기자 holjiak@

알립니다

제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중소·벤처기업 금융 지원 박람회

9월24~25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8홀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9월 24,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제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정부가 한국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내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박람회로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박람회에는 17개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포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창업투자회사 등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출, 보증, 투자를 해 주는 모든 금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에게 대출 및 투자 상담은 물론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 기간 : 2014년 9월 24~25일
- 장소 : 고양시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 8홀
- 주최 : 경제신문 이투데이
- 후원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참가 안내

- 참가자격 :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등 대출상담을 받고자 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
- 신청기간 : 2014년 8월 25일 ~ 9월 12일
- 참가신청 : 이투데이 홈페이지 배너 참조(<http://bit.ly/1nAi39l>)
- 행사안내 : 중소기업 금융지원 박람회 사무국
홍원선 팀장(799-6784, hhs@etoday.co.kr)

백척간두에 놓인 김준기 동부 회장

채권단, 530억 출자전환·6000억 신규자금 '정상화' 카드로 동부제철 대주주 '100대 1 무상감자' 추진...경영권 상실 위기 그룹측 "부실 평가 뺄뉘기" 반발...내일 채권단 회의서 결정

김준기(사진) 동부그룹 회장이 동부제철의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동부그룹은 채권단이 논의하는 동부제철의 대주주 100대 1 무상감자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동부제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19일 동부제철 대주주의 100대 1 무상감자를 채권단과 논의했다. 동부제철의 김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은 △동부 CNI(11.23%) △김 회장(4.04%) △김 회장의 장남 남호씨(7.39%) 등 총 36.94%다. 100대 1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대주주의 지분은 1% 미만으로 줄어들게 된다. 사실상 경영권을 잃게 되는 것이다.

채권단은 추가 자금 지원을 무기로 무상감자 실시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다. 채

권단은 무상감자를 전제로 530억원가량을 출자 전환하고 추가로 6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결의한 긴급자금 1600억원 지원을 포함하면 7600억원의 신규자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채권단이 의뢰한 삼일회계법인의 동부제철 실사 평가에 따르면 존속가치는 2조 4000억원으로 청산가치 1조8000억원보다 높다.

그러나 2분기 말 기준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자본 부족분은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동부그룹은 삼일회계법인의 평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실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논리다.

동부그룹은 장부상 순자산 가치가 1조



2000억원이지만 채권단이 토지와 건물 등 자산을 공시지가를 적용해 4200억원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자본잠식 결론이 난 것으로 동부그룹은 판단하고 있다.

또 동부그룹의 회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동부제철 인천공장의 매각 실패도 채권단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동부그룹은 판단하고 있다. 올해 초 채권단이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을 묶어 포스코에 일괄 매각하려 했지만 포스코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이들 자산의 매각은 늦춰지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김 회장의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동부제철의 부실 규모가 200억 원대에 불과한 것에 비해 채권단의 구조조정 수위가 높다는 시각이다.

김 회장의 동부제철 경영권은 23일 채권단 회의에서 결판 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대주주 100대 1 무상감자 등의 안건이 부의된다. 이 안건은 채권단의 100% 동의가 있어야 최종 확정된다. 김 회장이 동부제철의 경영권을 잃게 되면 동부그룹은 사실상 제조업 부문을 털어낸 금융회사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김승연 한화 회장 첫 공개석상에



지난 20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인천시 드림파크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경기장을 찾아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한 아들 동선씨를 축하해 주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AG 승마장 찾아

지난 2월 집유 사회봉사 중 3男 동선씨, 마장마술 결승 단체전서 금메달... 3연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경기장을 찾아 3남 김동선 선수를 응원했다. 올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7개월 만의 첫 공식 행보다. 김 회장의 애뜻한 부정(父情)이 통하기라도 한 듯 김 선수는 아시안게임 3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며 아버지의 응원에 화답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일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경기가 열린 인천 서구 백석동 드림파크 승마장을 찾았다. 이날 경기장에는 김 회장의 부인 서영민씨와 장남 김동관 한화솔라윈 영업실장도 함께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직후 만성 폐질환 치료를 위해 수차례 미국에 다녀오는 등 건강 회복에 주력했다. 지난 6월부터는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이행하기 위해 사회복지 협력기관에서 매주 2-3회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처럼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벅타이 없는 하늘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 차림으로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김 회장은 경기를 지켜보며 자주 미소를 짓는 등 표정이 밝았다. 다만 치료 시작 단계보다 건강 상태가 훨씬 나아졌지만 아직 정상 수준

까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관람석에서 아들의 경기를 지켜보고서 시상식 후 동선씨를 만나 격려했다.

고(故) 김종희 한화 창업주에 이어 동선씨까지 3대를 이어오는 한화그룹의 승마 사랑은 재계에서도 유명하다. 김 회장의 창업주는 1964년 도쿄올림픽 때 외국에서 말을 구해 와 한국 승마대표팀이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도왔다. 한화는 갤러리아 승마단을 운영하고 대회를 직접 개최하며 매년 10억여원을 후원하는 등 승마협회의 재정 지원을 도왔다.

한편, 이날 동선씨가 속한 한국 국가대표팀은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아시안게임 5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동선씨는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 이어 세 번째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미국 테프트스쿨(고교)과 다퍼머스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동선씨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하고, 두 형에 이어 한화그룹에 입사해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동선씨는 지난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을 획득, 군복무를 면제받아 경영수업을 받는 데 걸림돌이 없다.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는 현재 한화그룹에서 태양광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고 차남 동원씨도 올해 초 한화그룹에 입사해 디지털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세아그룹 3세' 이태성, 잇단 자사주 매입... 왜?

(세아홀딩스 상무)

이태성(사진) 세아홀딩스 상무가 1년 만에 세아홀딩스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22일 세아홀딩스에 따르면 이 상무는 지난 16일 장외에서 세아홀딩스 주식 2만 4100주를 매입한 데 이어 다음날 1900주를 추가로 장내 매수했다. 이로써 이 상무의 세아홀딩스 지분은 32.70%로 늘었다. 작년 9월 그룹 계열사인 세태스틸로부터 세아홀딩스 지분 10만7600주(2.69%)를 매입해 보유 지분을 30%를 넘긴 지 1년 만이다.

이 상무의 지분 매입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삼촌과 조카, 그리고 사촌 간에 지분경쟁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형제 경영이 순탄하게 이뤄져 온 점, 현재 포스코특수강 인수에 여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시나리오는 설득력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세아그룹은 당초 이운형-이순형 형제가 함께 경영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운형 회장이 급작스럽게 해외출장길에서 고인이 된 이후 경영권을 둘러싼 세간의 관심이 일었다.

세아홀딩스는 고 이운형 회장의 지분

세아홀딩스 2만4100주 이어 1900주 추가매수 지분 32% 부친 상속분까지 최대주주로 현대제철 특수강 진출 견제 '가족경영체제'는 유지 분석

을 상속한 이태성 상무가 32.70%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이고, 그의 모친인 박의숙 부회장이 7.90%를 보유해 총 40.6%의 지분을 갖고 있다. 동생인 이순형 회장(17.66%)과 그의 아들 이주성 세아메탈 상무(17.95%)는 총 35.6%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태성 상무의 지분 추가 매입이 지분경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현대제철의 특수강 진출을 위기를 맞고 있는 세아그룹이 당분간 지분경쟁이라는 내부 갈등보다는 사업 역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평가다. 특히 고 이운형 회장의 부인인 박의숙 세아메탈 사장이 세아홀딩스의 부



회장으로 그룹 경영의 전면에 나서면서 가족경영 체제가 당분간 계속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작년 3월 남미 출장 중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선친 이운형 회장의 뒤를

이어 경영일선에 등장한 이 상무는 포스코특수강 인수를 위한 TF팀의 선봉에서 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인수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자동차 특수강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수직 계열화하면 현대기아차에서 매출의 70% 가량을 올리고 있는 세아그룹에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가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현대제철의 특수강 진출을 얼마나 잘 견제할 수 있는지가 이 상무의 경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세아그룹이 포스코특수강 인수를 마무리 지으면 연간 400만t 규모의 생산력을 갖춘 세계 최대 특수강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동부특수강 인수에 성공하면 현대제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덩치를 키우게 된다.

세아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입은 전략기획본부장이자 주주로서 책임감을 기반한 지분 매입이며, 지분 매입의 경우 가족 간 상의를 통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업계 불안과 외부 인수 건으로 당면한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합심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진기자 heejin@

당신을 위한 올바른 약속 ING 생명

모으고! 나의 투자성향에 맞춰 선택하는 다양한 펀드

키우고! 수익추구를 위한 다양한 투자펀드 옵션

더하고! 장기납입 시 장기납입 보너스 추가 적립

당신의 자산 차곡차곡 모아 더 크게 키워주세요!

- 엄선된 13종의 펀드로 나만의 맞춤 포트폴리오를 구성
- 다양한 투자관리 옵션으로 안정적인 수익추구
- 5년 이상 보험료 납입시 장기납입보너스 추가 적립 (61회차 이상 - 기본보험료의 1%, 85회차 이상 - 기본보험료의 2%)

축산물 시장 내주고 자동차·프리미엄 가전 수출 길 넓히고

한·캐나다 FTA 내일 공식 서명

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22일(현지시간·한국시간 23일 새벽) 앞으로 10년 안에 교역 품목의 99%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한다. 이에 캐나다는 자동차와 일부 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을 허물고 우리나라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캐나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22일 정상회담을 한 후 윤상직 산업부장관과 에드 패스트 통상장관이 공식 협정 서명식을 한다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21일 밝혔다.

양국의 FTA 협상 타결 서명은 지난 2005년 협상 개시 이후 9년 만이다. 앞서 양 정상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협상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4대 경제대국 중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을 제외한 9개국과 FTA 체결을 맺었다.



국빈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타와 총독관에서 열린 데이비드 존스톤 총독내외 주최 국빈만찬에 참석, 스티븐 하퍼 총리와 건배하고 있다. 오타와(캐나다)=AP

교역물품 99% 관세 10년내 폐지

최대 수혜 자동차는 3년내 철폐

쌀 등 21개 품목 개방대상 제외

민감한 품목은 장기철폐 등 보호

경제대국 14국 중 9개국과 체결

아시아 국가로는 캐나다와 처음

中日車·가전보다 경쟁력 확보

이번 FTA 내용에 따르면 양국 모두 10년 내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하고, 상품·서비스·투자·경쟁·지적재산권·환경·노동 등 경제 대부분을 포괄하는 수준으로 체결됐다.

또 이번 FTA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유럽에 이어 북미시장까지 주요 경제권 대부분과 FTA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세계 14대 경제대국 가운데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9개국과 FTA를 체결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캐나다 측에서는 아시아 국가와의 첫 FTA 체결이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과 비교하면 주요 경쟁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자동차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 22억3000만 달러, 수출비중 42.8%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현 6.1%)를 3년 내 철폐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부품(관세율 6%), 타이어(관세율 7%), 세탁기·냉장고(관세율 8%) 등도 관세가 즉시 혹은 3~5년 내 철폐 등으로 합의돼 역시 수출 증가도 예상된다.

이 가운데 자동차 부품은 완성차 분야의 수출 상승으로 수리용 부품 수출도 증가가 기대되며, 가전제품 가운데 대형 프리미엄급은 기술력, 디자인, 브랜드 인지도, 기능면에서 국산제품이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관세인하 효과까지 더해지면 시장점유율 확대가 수월할 전망이다.

하지만 농축산업 등 캐나다가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에서는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쌀 등 21개 품목은 양허제외, 71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또는 저율할당관세 부과 등 민감한 품목을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안 수석은 "이번 FTA나 한·호주 FTA를 묶어서 우리 농업 분야의 보완대책으로 2조1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이미 농업의 6차 산업화 및 수출 산업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수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방법도 강구되고 있어 이번 서명에 따라 농축산업의 피해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캐나다 FTA의 조기 발효를 목표로 다음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부미 기자 boomii@

향후 일정은

국회 본회의 통과 땐 내년 FTA 발효

내달 초 비준동의안 제출 차 "양국 협력 잠재력 극대화"

캐나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지난 3월 (스티븐) 하퍼 총리께서 방한했을 때 타결해서 내일 서명하게 될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후 첫 공식 일정으로 수도 오타와의 데이비드 존스톤 총독 관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두 나라는 긴밀한 협력 파트너이자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상호 번영은 물론 국제평화와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2일에는 캐나다 의회를 찾아 스티븐 하퍼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 오찬을 겸한 확대정상회담을 잇달아 갖고 양국관계 평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 및 향후 계획 주요 일정

2005년 7월 28일	협상 개시
~2008년 3월	총 13차례 공식 협상
2013년 11월	14차 협상 통해 큰 틀에서 실질적 진전 확인
2014년 2월	양국 수석대표급 협의서 주요 잔여 쟁점에 대한 처리방안 합의
2014년 3월	통상장관회담서 최종 합의 도출 및 하퍼 총리 방한 때 가서서명
2014년 9월 23일	공식 서명 (예정)
10월 초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15년	연내 공식 발효 계획

와 미래발전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가서서명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식을 비롯해 산림협력 양해각서(MOU), 항공운송협정 등의 체결식에 참석한다. 양국이 FTA 서명을 마치면 각각 의회에서 비준동의의 절차를 진행한다. 우리 정부는 내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FTA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중 기자 zerg@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캐나다 FTA 투자 조항

조항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투자와 환경	원본적인 규제 가능성 언급	투자유치 위해 환경 희생 안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없음	국제적 표준을 두 나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장려
형사범죄 등 열거된 사례에서 송금 금지	형사범죄 등 열거된 사례에서 송금 금지	협정에 열거된 사례가 아니어도 송금 금지 가능성 열어둬

한·호주 이어 한·캐나다까지...수출환경 개선

국내 산업계, 잇단 FTA '신바람'

섬유·라면·화장품 등도 수혜 기대

최근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 산업계에 화석이 돌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22일 "수입 관세가 사라진다는 것은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잇단 FTA 체결로 국내 산업계의 수출 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캐나다 FTA 체결로 완성차는 물론 부품 등 자동차 업계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는 지난해 기준 캐나다 수출 22억3000만 달러, 수출 비중 42.8%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이다. 이번 FTA 체결로 캐나다 수출 승용차 관세(현 6.1%)가 3년 내 철폐된다. 자동차부품, 타이어 부문에 각각 매겨져 있는 7%, 6%의 관세율도 3~5년 내 사라지는 등 자동차 업계 전반의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가솔린 소형·중형차, 디젤 소형차에 적용되는 관세 5%가 즉시 철폐되는 호주와의 FTA에 이어 캐나다와의 이번 협정으로 수출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FTA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엄급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 부분의 수혜도 예상된다. 캐나

한·캐나다 FTA 수혜 업종

업종	관세율	합의안
자동차	6.1%	3년 이내 철폐
자동차부품	6.0%	3~5년 이내 철폐
자동차 타이어	7.0%	3~5년 이내 철폐
냉장고·세탁기	8.0%	3~5년 이내 철폐
섬유	5.9%	3년 이내 철폐

다와의 FTA가 발효되면 냉장고·세탁기에 대한 관세 8%가 3~5년 이내에 철폐된다. 가전업계는 현지 시장에서 우수한 디자인과 기능성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 강화 효과가 더해져 점유율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대형 가전업체 한 관계자는 "캐나다는 미국과 더불어 북미 시장의 축"이라며 "프렌치도어 냉장고, 빌트인 가전 등 프리미엄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이 품질은 물론, 윌풀·밀레·지멘스 등 경쟁자보다 큰 가격 경쟁력까지 갖게 됐다"고 반색했다.

이밖에 섬유 관세(평균 5.9%)를 3년 내 없애기로 한 것은 중소기업에게 특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한국산 라면, 소스, 화장품 등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식음료 업계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장효진 기자 js62@

**빛나는 남자는
그만의 에센스를 품고 있다**

헤라 옴므 에센스 인스킨

HERA HOMME

CELL VITALIZING
ESSENCE IN SKIN
Concentrated MEN'S ACell™
FOR ALL SKIN TYPES
INTENSIVE SKIN BOOSTING

• 유명배화점이나 이모레 커먼세일링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상담 : 080-023-5454(수신시 요금부담) www.herahomme.co.kr



당정협의 참석하한 이기권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201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과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및 격차 해소 등을 논의했다. 노진환 기자 mylixer@

원·엔 900원까지 내려간다

달러 강세 영향 하락세 커 "경제부담 작용 시점 도래"

미 달러화 강세로 원·100엔 환율이 약 6년 만에 연중 최저치를 찍으며 엔저가 고삐 풀린 모양새다. 특히 엔화가 원화보다 더 가파르게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100엔 환율이 올해 9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18일 기준 108.69엔을 기록,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두 달 전인 7월 18일(101.34엔)보다 7.3% 올랐다. 이는 14개 주요 통화 중 절하율이 가장 높다. 또 이는 같은 기간 원화가 달러화 대비 1.4% 절하된 것보다 5.2배 더 크게 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원·엔 재정환율도 지난 19일 오후 3시 기준 100엔당 957.21원으로 집계, 4거래일 동안 10.8원이나 떨어지면서 연 중 최저치를 찍었다. 이는 지난 2008년 8월 20일(954.95원)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다음 달 테이퍼링을 종료하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시권 내로 들어오자 엔

화가 원화보다 더 빠르게 절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엔화는 경기부진과 정부의 엔저 정책이 맞물리며 더 빠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지난 4월 소비세를 인상하고 나서 경제지표가 기대보다 개선되지 않자 시장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 완화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상태다. 반면 한국은 7월까지 2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행진을 이어가며 상대적으로 미 달러 강세 기조에 잘 버티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원·100엔 환율이 앞으로 최저 900원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대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원·100엔 환율은 9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한국은행이 올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승지 삼성신설 연구원은 "원·100엔 환율은 2012년 하반기 1400원대 수준에서 현재 950원대까지 하락했으며 올해 930원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까지는 엔저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수출경쟁력 등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진영 기자 mint@

한국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구분	현행	재직자	신규자
공무원 기여율 (정부 부담률)	7%	2016년 8.0% → 2026년 10% (10년간 年 0.2% ↑)	2016년 4.5%
연급 급여율	1.9%×n	2016년 1.35% → 2026년 1.25% (10년간 年 0.01% ↓)	2016년 1.15% → 2028년 1.0% (매년 0.0125%p ↓)
퇴직금(수당)	퇴직수당 민간대비 39%	2015년 12월 31일 이전 재직기간은 퇴직수당 → 2016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산식	2016년 1.15% → 2028년 1.0% (매년 0.0125%p ↓)
유족연금	2010년 이전 70% 2010년 이후 60%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	2016년 1.15% → 2028년 1.0% (매년 0.0125%p ↓)
연급액인상률	물가인상률 인플레이션	물가인상률에 고려해 저수율 도입 (물가인상률 이하로 증액) 하고 물가인상률보다 낮게 증액된 연급액의 3%를 재정안정화에 기여	물가인상률 인플레이션

"연금부담금 43% 더 내고 34% 덜 받게"

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퇴직수당은 일시금·연금 보전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마련하고 21일 학회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2016년 이전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 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 부담 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쪼인다.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 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2016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사

실상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은퇴 이후에 받는 구조로 바뀐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및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되고,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유족연금도 후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의 60%로 10%포인트 낮춰진다. 2016년 이후 공무원은 9% 기여금(본인 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게 된다.

한편 민간 퇴직금의 50%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으로 보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면 초기부터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 세수 확대 목적 아니다"

정부 해명에도 "말장난 불과" 비판 확산

"증세 없었던 차정부 시민밀착형 세금 품수"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

증세 논란 관련 정부 해명

담뱃값 인상·지방세 개편 등은 서민 증세 필수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 세수확대 목적이 아닌 22년만의 지방세 개편 추진은 지방세제의 현실화·정착화·자율채세 인상을 택시, 승합, 화물차 등 일부에만 적용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부자감세는 사실이 아니며,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중
소득세·법인세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적 증세는 경기 회복세를 위촉시킴

정부가 담뱃값과 지방세를 줄줄이 인상키로 하면서 불거진 증세 논란이 거세다. '증세는 없었다'던 정부가 말과 다르게 서민 밀착형 세금을 올리는 품수를 부렸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증세에 나선 것이 아니다'라며 항변하고 있지만 비판 여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급기야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세금에 발목을 잡히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휴일인 21일 이례적으로 '2015년 예산안 10문10답' 해명자료까지 뿌리며 국민에 안간힘을 썼다. 최근 발표된 담뱃값 인상안과 지방세 인상안의 목적이 세

수 확보에 있지 않다는 게 골자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 출장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일 "일각에서 '증세'라는 '의도적 프레임'을 갖고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사실 증세 논란은 작년도에도 있었다. 지난해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으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노린다는 논란이 일었던 세법개정안도 '실상 1조원짜리 증세'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당시 기재부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으므로 증세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 지시로 발표 나흘 만에 수정안을 냈다.

정부의 올해 해명은 작년과 다소 다르다. 담뱃값 인상을 위해 개별소비세를 신설했고(세목신설) 지방세 가운데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세율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신 외부 불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죄악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장용 기획재정부 세계실장은 "넓은 의미에서는 증세가 맞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증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의 논리는 간단하다. '세 부담을 늘렸다면 증세(增稅)가 맞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에 상당수 전문가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도 '세금은 늘렸지만 증세가 아니다'라는 정부 논리를 조롱하는 게시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다수의 세계 전문가들도 "이유야 어떻든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었다면 증세가 맞다"며 여론을 지원한다.

일부 전문가들로부터는 정부의 해명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건강이라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라며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계획대로 안 돼서 재정 지출을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여러 방안 가운데 이것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a@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호주 케인즈 힐튼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위해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의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저성장 고착화 탈피... 과감한 수요진작"

G20 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성장이 고착화되지 않으려면 과감한 수요진작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21일 호주 케인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 거시정책을 운용과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공조로 강조

해 G20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취임 후 첫 세계경제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최 부총리는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수요부족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성장잠재력마저 갉아먹는 '성장 무력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너무 늦게 불충분한 규모로 대응하면 '소신감'의 함정에 빠져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만큼 과감한 수요진작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최 부총리의 목소리는 21일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도 적극 반영됐다. 기재부는 이번 G20회의를 통해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손쉬운 경기부양이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해 필요한 과감한 수요 진작과 뼈를 깎는 구조개혁의 '균형 잡힌 처방'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세계경제의 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조타수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저금리에 한달새 12조↑ '특정금전신탁' 재부상

저금리가 심화하면서 특정금전신탁 상품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증권, 은행,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금전신탁 수신잔액은 281조187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2조4074억원(4.6%)이나 증가했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작년 1월의 6.4% 이후 최고치다.

금전신탁의 잔액 증가율(전월 대비)은 2월 0.6%, 3월 0.4%, 4월 0.7%로 0%대를 3개월 연속 유지하다가 5월 3.1%로 급등한 이래 6월(-0.7%)에는 뒷걸음질쳤다.

지난 7월의 증가세는 동양사태 이후로 주춤하던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이 다시 인기를 끄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7월말 기준 특정금전신탁 수신잔액은 208조5711억원으로 전월보다 12조4009억원 늘며 연금기 투자하는 불특정금전신탁까지 포함한 전체 금전신탁의 수신 증가세를 주도했다.

특정금전신탁이 다시 부상한 데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 은행들이 지난 7월 예금 금리를 미리 내리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찾아나선 시종자금이 몰린 데 따른 것이다.

이진영 기자 mint@

S&P, 한국 신용등급 '안정→긍정' 상향조정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2년 만에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신용등급은 종전과 같은 A+를 유지했다. S&P가 부여한 '긍정적' 전망은 앞으로 6~24개월 사이 등급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S&P는 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이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라고 밝혔다.

S&P는 전망 상향의 이유로 우호적 정책 환경, 양호한 재정건전성, 대외 채무구조 개선 등을 꼽았다. S&P는 한국이 수출 다변화와 높은 수출 경쟁력에 힘입어 지난 5년간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보다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 3년간 지속적 원화절상에도 수출이 증가한 것은 경제 전반의 구조가 개선된 결과라는 것이다. 또 2000년 이후 재정수지가 대부분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채무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007년 이후 은행의 대외채무 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여타 신흥국이 급격한 자본유출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유충현 기자 lamuzia@

의원·지자체, 담뱃값 인상 '동상이몽'

"담배농가 소득세 감소" 우려 "부족한 세수 보충..." 불가피 인상폭 두고도 의견 엇갈려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계획을 두고 여야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서도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당은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세 인상에 찬성, 야당은 서민 증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속내를 보면 초기부터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절감하는 효과로 예상된다.

야당 역시 담배 농가가 밀집한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서민증세라는 이유 보다는 담뱃세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의

여과로 원담배 생산 농가의 소득감소를 우려해 담뱃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담뱃세 인상 관련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은 최근 원담배 생산 농가들과 만나 "농가 보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 확대로 인해 지방세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담뱃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여야 없이 번져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우리 당 안전행정부위원회 관계자들은 사실 지방세를 더 걷기 위해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담뱃세에서 못 걷으면 메울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겉으로 반대해도 내심 담뱃세 인상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에선 정부의 2000원 인상폭

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서민들의 부담을 생각해 500원 정도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물밑에선 나오고 있다. 인상 방식을 두고도 한 번에 크게 올려야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단계적으로 차등 인상해야 부담이 적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정부의 지방세 인상 계획에 찬성할 전 국사·도시시행의회(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식 입장과 달리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세금은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지방세가 증가한다고 무조건 도지사로서 찬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담뱃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외환銀 노사, 이번엔 ‘댓글 조작’ 공방

사내 인트라넷에 노조 행태 비난 글 잇따라 올라와 노조 “사측이 게재 지시”... 사측 “사실무근” 일축

하나은행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외환은행 노사 갈등이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 이번엔 게시물 댓글 조작 공방이다. 노조는 자신들에 대한 비난 댓글들이 사측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인트라넷에는 사측의 대규모 징계를 두고 노조의 책임을 묻는 비난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한 직원은 “우리는 시민운동가가 아니고 투쟁가도 혁명가도 아니다”라며 “노조는 경영진에 전향적으로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직원 역시 “노조위원장은 명예와 대의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조합원이 바라는 바에 따라 대화의 장에 나가 협상에 임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달 초 임시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직원 898명에 대해 사측이 사상 유례 없는 전원

징계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엄포하자 노조의 미숙한 대응방식에 대해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외환은행은 지난 19일부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강경한 태도로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노조의 태도에도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직원은 “부산·경남 대의원이 9.3 총회 참석 관련 입장을 발표하자 ‘내보내라’는 고성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고 전했다.

이같은 게시글 하단에는 그 뜻을 같이 하는 직원들이 댓글이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씩 달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직원

들에게 지시해 댓글을 달도록 유도했다며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한 부사장은 직원들과의 모바일 메시지 단체방에 “지금 게시판에 대의원대회 관련 글이 올라오는데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임직원들이 직원들에게 메일이나 모바일 메시지를 보내 노조를 비난하는 글에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다”며 “그러한 정황들을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측은 이같은 댓글 조작 의혹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국세청 직원 카드깡, 금감원은 금품수수 ‘경제검찰’ 투톱 망신살

국세청 직원들이 최근 ‘카드깡’ 혐의로 대거 적발된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렸다. 대한민국 경제검찰로 치부되고 있는 국세청과 금감원의 위상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최근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업체를 조사하다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융감독원 팀장 이모(45)씨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께 전자제품 제조업체 D사로부터 조사 무마정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D사가 증권시장에 개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조사하던 중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D사 대표이사와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A씨는 회사가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 B씨에게 금감원 담당 팀장에게 전달해달라

현금 5000만원을 건넸고, 이 돈은 전직 금감원 직원 C씨를 통해 이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B씨와 C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이들이 이 팀장에게 현금 5000만원 중 일부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지난 17일 이 팀장을 체포, 조사한 뒤 일당 귀기시켰다.

그러나 이씨는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직 금감원 직원인 C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따라서 이씨에게 돈을 건네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씨는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고 당시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는 처벌됐으므로 금감원이 눈감아줬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지방검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1일 카드깡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범행을 눈감아준 서울 소재 세무사 7급 공무원 최모(40)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공무원 6명은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신세계, 블라인드 면접 “대학·학과·나이 안 따져”

신세계그룹이 채용방식을 확 바꾼다. 면접관들에게 지원자의 출신 대학이나 학과, 나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해 정용진 부회장이 강조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뽑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채는 스펙만 뛰어난 인재가 아닌 인문학적 소양을 두루 갖춘 인재, 특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차별화된 인재를 뽑기 위해 ‘드림 스테이지(Dream Stage)’를 도입했다.

전형 방법은 자신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된 능력과 경험이 있다는 것을 내부 전문가들 앞에서 직접 소개하는 방식이다.

한편 상반기 지식 향연을 통해 선발된 청년영양단에게는 채용 특전을 부여한다. 청년영양단은 전국 10개 대학에서 열린 지식향연 참가자 가운데 인문학 미션을 통과한 20명이 선발됐다.

아울러 신세계그룹은 직무 구분없이 일괄 모집하던 채용방식을 벗어나 직무별 채용으로 선발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그룹 관계자는 “업무에 대한 도전정신과 열정, 건강한 주관과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적극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6개 계열사(백화점·이마트·인터내셔널·건설·아이앤씨·사이번)의 신입직원 200여명을 공개 채용한다. 10월 6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으며, 2015년 8월까지 졸업 가능한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윤철규 기자 yoonck@



수능 D-50... 간절한 기도 2015 대입수험생시력시험을 50여일 앞두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수능기도를 올리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무늬만 무한’인 LTE무한요금제

소비자원, 223개 요금제 분석... 추가 데이터 속도제한 영상전화 등 50~300분만... 음성통화 휴대폰만 무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LTE 무한 데이터 요금제가 말만 ‘무제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3사(CJ헬로모바일·SK텔링크·유니콤즈)가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무한요금제가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부 이동사는 추가로 주는 데이터도 LTE가 아닌 400kbps로 속도를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이동사 관계자는 “월 기본 제공량 이후에도 1일 1~2GB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그 외 추가 사용 데이터도 유해속도로 제공하는 등 일반 고객이 무제한

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해당 부분은 일부 이용자의 과도한 독점적 이용을 막아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는 취지로, 요금인 과 과정에서 미래부도 공감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무한 음성통화 요금제도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전화나 15**이나 050*으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의 통화량은 50~300분으로 제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한요금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요금제에서 ‘무한’이나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소비자에게도 제한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소비자 1054명에게 스마트폰 요금제 등에 대한 설문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무한요금제를 사용하는 428명 중 절반(57.3%)이 넘는 인원이 무한요금제의 제한조건을 모른다고 답했다.

무한요금제 사용자 4명 가운데 1명(24.1%)은 이러한 제한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가 초과요금을 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또 알뜰폰 요금제는 전반적으로 이동3사의 요금보다 저렴했지만, CJ헬로모바일과 SK텔링크의 일부 요금제의 경우 이동 3사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요금제 비교 분석은 LTE요금제의 구조적 특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실제 부가혜택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앞으로 소비자가 LTE 요금제 선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각 요금제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병근 기자 nova@

‘한전 청도 돈봉투’ 출처는 시공사?

경찰, 회계장부 압수 정황 포착

한국전력의 경북 청도 주민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돈 봉투의 일부가 송전탑 시공사에서 나온 정황을 포착,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청도 송전탑 시공사인 D사와 하청업체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입수한 회계장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한전 대구경북건설사 직원들이 추석 때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기 전 시공사로부터 돈 일부를 받았다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전이 주민들에게 전달한 돈은 총 1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100만원은 이 전 지사장과 부인의 은행 계좌에서 나

온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출처가 모연한 나머지 600만원이 시공사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 전 지사장과 부인의 통장에서 나온 1100만원도 어디에서 온 것인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전 직원들이 시공사와 접촉해 돈을 받은 정황이 있어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한전 지사와 시공사의 압수물 분석 결과가 나오면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한전 지사가 주민 로비용 비자금 계좌를 조성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나 아직 이와 관련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다음 수는... 서울시가 서울 차 없는 날인 21일 오전 7시부터 19시까지 세종대로(광화문 삼거리~시청 앞) 1.1km 구간에 차 대신 서울의 희망을 담은 ‘따뜻하고, 안전한, 숨쉬는 거리’를 테마로 다양한 시민 참여프로그램과 시민 공연으로 채운다.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에서 바둑을 두는 어린이가 고민에 싸여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중장년 채용 한마당’ 구직자 7000명 몰려

대기업 협력사 등 190개 우량 중소·중견기업이 중장년층 2081명을 뽑는 채용장터가 개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코엑스에서 고용노동부, 주요그룹 등과 공동 주최로 ‘2014 중장년 채용한마당’이 열렸다고 밝혔다.

올해는 유통·서비스직 1033명, 연구·기술직 361명, 사무관리직 263명, 생산·품질직 258명, 영업직 147명 등 총 2081명의 중장년을 채용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LG(19개사), SK(13개사), 현대(13개사), 현대자동차(12개사), 삼성(11개사), 롯데(9개사), 포스코(9개사), 한화(8개사), GS(7개사), 만도(7개사), 두산(5개사), KT(3개사) 등 12개 그룹의 116개 협력사와 58개 우량 중견·중소기업, 16개 시간제일자리기업 등 총 190개사가 참가했다.

이번 코엑스 행사장에는 사전면접신청자 1500명과 현장등록자 5500여명(추정치) 등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 구직자 7000여명이 몰려 이른 아침부터 구직 행렬이 이어졌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취업토탈솔루션관’, 토크콘서트 ‘공감JobTalk’ 등 구직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한전 발주 전력량계, LS산전·한전KDN 등 14곳 담합

공정위 과징금 9억7200만원 부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LS산전과 한전KDN 등 12곳의 업체와 사업협동조합 2곳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12개 업체와 2개의 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전력량계 제조업

체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담합 입찰건수는 모두 35건으로, 총 계약금액은 193억여원에 이른다.

이들은 사업시작 연도와 회사 규모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A·B·C군으로 분류하고, 군별 지분율을 사전에 정했다. 특히 한전KDN을 제외한 11개 업체는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한전 발주 물량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총 28건의 입찰을 단체로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신규업체가 등장해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2009년에는 중소 전력량계 제조사들이 사업협동조합 2곳을 만들어 다른 조합이나 비조합사 등과 담합해 입찰에 참여, 수주한 물량을 조합 내부에서 다시 나눠가졌다.

부과된 과징금은 LS산전 2억5600만원, 남전사 2억1200만원, 피에스텍 1억7600만원 등이다.

윤필호 기자 beetlebun@

청정원 제품 홍보·관측 정규직 모집

여성직장 재탐색!

대상(주)청정원이 시장순회 관측 정규직 사원을 모집한다.

직무내용은 청정원제품 식량 홍보 및 제품 관측이다. 합격자는 인천 부평구와 서구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지원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경력이나 전공, 학력, 외국어능력, 컴퓨터활용능력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회사 측은 “차량 소지자로 45세 미만 지원하기 바란다”라고 명시했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32-511-0914)로 문의 가능하다.

유희은 기자 euna@

모집요강	홍보·관측원
모집직종	홍보·관측원
직무내용	청정원제품·식량·홍보·및·제품관측
접수기간	채용시까지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경력조건	관계없음

삼성생명, 中 합작사 경영권 넘긴다

‘중항삼성’ 경영부진... 유증 통해 중국은행 최대주주 올라 지난 8월 이사회서 결정...“방대한 영업망, 방카 확대 기회”

삼성생명이 중국 합작 생보사인 ‘중항삼성인수보험(이하 중항삼성)’의 경영권을 중국은행에 넘기로 했다. 적자가 지속되는 등 경영부진이 계속되자 중국 최대 영업망을 가진 중국은행을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8월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중항삼성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삼성생명은 중국 최대 항공사인 중국국

제항공(에어차이나)과의 합작으로 2005년 중항삼성을 설립했다. 지분은 양사가 50%씩 보유하고 있다.

중항삼성은 현재 중국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난해 9월 말 현재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70여 개의 중국 생명보험사 중 53위 수준이며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시장 내 경쟁이 워낙 치열한 데다 영업망 부족 등이 겹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삼성생명은 중항삼성의 유상증자

로 최대주주 자리를 중국 현지 보험사에게 넘기로 결정한 것이다. 중국은행의 현지 영업망과 증은보험의 노하우 등으로 중국내에서의 입지를 더욱 다지기 위한 전략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중국 현지 법인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유상증자가 아니라 지분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경영에는 계속 참여할 것”이라며 “중국은행의 방대한 지점을 통해 방카슈랑스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역시 삼성생명이 중국 생명보험 시장에서의 방카슈랑스 영업 확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유독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유상증자로 중국은행에게 경

영권을 넘긴 뒤 방카슈랑스를 통한 성장을 꾀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유상증자의 규모나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중국 보험감독위원회에 중국은행이 지분을 참여한다고 신청했지만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허가가 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며 “연내 합작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행은 자산 기준으로 중국 4위의 은행이며 중국 전역에 1만여 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 이재현 기자 nfs10118@

KB금융, 새 회장 내달 말 윤곽 회추위원장에 김영진 사외이사

5차례 회의후 후보군 확정 CEO 승계 프로그램 따라 ‘상무 이상’ 잠정 후보 자격



말 차기 회장 후보로 최종 결정된다. 여기서 결정된 회장 후보는 오는 11월 14일로 예정된 KB금융 임시 주총에서 확정된다.

KB금융 이사회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을 선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가 11월에 예정돼 있는 만큼 다음달 말이면 KB금융을 이끌 새 수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KB금융 이사회는 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작업을 시작했다. 회추위원장은 김영진(사진) 사외이사가 맡았다.

회추위는 앞으로 5차례 정도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확정하되 인터뷰를 거쳐 다음 달 말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외부에서 정한 후보들은 서면평가와 평판조회, 면접 등을 거쳐 다음달

DGB금융, 우리아비바 인수 속도

오늘부터 6주동안 실사 돌입 인수엔 그룹 비은행 비중 확대 은행 87%·보험 10%·여전업 2% 사업재판... 종합금융사 발판

DGB금융그룹이 사업영역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DGB금융은 우리아비바생명보험에 대한 실사에 본격적으로 착수, 이른바 올해 안에 가격 조율 등을 끝내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이날부터 약 6주간의 실사 및 가격 조정 과정을 거쳐 NH농협금융이 보유한 우리아비바생명 주식 98.9%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간 DGB금융은 꾸준히 보험, 자산운용사 인수를 위한 모니터링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농협금융의 우리아비바생명의 매각 의사를 확인하고 양사간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우리아비바생명은 총자산 4조7000억원, 설계사 1200명을 보유한 생보사로 수도권과 영남권 등 전국적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 DGB금융이 우리아비바생명을 인수하게 되면 그룹 내 비은행 비중이 12%대로 확대돼 수익원 다변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한 종합금융 도약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DGB금융은 총자산 기준으로 은행업 부문 비중이 96%에 달한다. 이는 다른 지방 금융지주인 JB금융(77.9%)이나 BS금융(90.8%)에 비해 높은 수치로, 그만큼 저성장·저금리 리스크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DGB금융이 우리아비바생명을 인수하게 되면 사업구조는 은행 86.9%, 보험 10.6%, 여전업 1.9% 순으로 재편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kimji@



“인천AG 경기장서 환전해 드립니다” 22일 신한은행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찾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환전·기념품판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김민지 기자 kimji@

기업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내달 3-5일 일시 거래중단

IBK기업은행은 새로운 전산시스템 전환을 위해 다음달 3-5일 신용카드를 제외한 모든 은행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고객은 연후 3일 동안 자동화기기 현금 입·출금과 송금, 인터넷 뱅킹·텔레뱅킹 등 전자금융, 체크카드 이용 등 모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신용카드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단된 업무는 6일 오전 4시부터 재개된다. 김민지 기자 kimji@

실버암보험 판매 1년도 안돼 ‘시들’

작년 10월 농협손보 시작 5개사 LIG 2월 출시 4만건→8월 3천건 신상품 효과... 실적 감소세 뚜렷

손보사가 실버암보험시장 위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10월 농협손보 출시 후 LIG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삼성화재까지 뛰어들며 5개사가 판매하고 있지만 최근 판매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실버암보험인 시니어암은 6월 출시 후 판매건수 4만4000건, 매출 36억90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타사가 한 달에 3만~4만건을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기대보다 저조한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 더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상품 출시 초기에만 신상품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밝혔다.

LIG손보도 실버암보험 출시달인 2월 4만5000건, 3월 3만7403건의 판매건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7월에는 3824건, 8월 3730건으로 현저하게 판매건수가 떨어졌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실버암보험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9월 부터 ‘더 든든한 시니어암보험’의 가입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80세로 대폭 늘렸다. 다만 기존보다 고연령까지 가입을 가능하게 만들어 언더라이팅(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강구귀 기자 kkk@

IC카드단말기 전환 ‘산 넘어 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설명회 ‘카드번호 저장 금지’ 쟁점으로 “자체정산 못해... 개발비 막대”

IC카드단말기 교체 사업을 위해 최근 국내 신용카드사들과 대형 가맹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가맹점의 카드번호 보유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22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존의 MS(마그네틱)카드결제 방식에서 IC(접촉회로)카드 결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형가맹점이 난색을 표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6일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들과 8개 카드사가 참석한 가운데 IC단말기 교체 사업을 위한 첫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IC단말기 전환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과 가맹점이 카드번호를 저장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카드번호 보유 문

제였다. 여신협회는 IC단말기 전환 관련 지난 6월 대형 가맹점 POS단말기 보안표준, 7월에는 캔단말기 보안표준을 잇따라 만들었다. 보안표준에 따르면 가맹점이 카드번호를 저장할 수 없어 대형가맹점들이 반발했다.

가맹점들은 카드번호를 ‘키(Key) 값’으로 활용해 자체 정산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지하면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여신협회는 카드번호가 유출될 경우 이미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정보와 붙여 재가공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벤사 등 결제 관련 전문가들은 카드번호만으로 결제가 불가능해 악용의 소지가 적고, 카드번호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저장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대형가맹점들은 의무적으로 IC단말기 전환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영림 기자 ellee@

1시간 속성 해설 셰일가스 혁명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저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셰일가스와 관련된 주요 110개 기업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체된 IT 산업, 반격에 나선 조선, 철강, 항공, 철도, 소재 산업...
일본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의 대부활!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BJ(유엔제이) 번역
신국판 199쪽 1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 예측
- 중동의 발전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 싸움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본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른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부천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도서출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문의 02-799-6727 팩스 02-799-2666

e-mail: youngsh@today.co.kr



PARIS BAGUETTE
파리바게뜨
최대 15% 할인

Caribbean Bay
캐리비안베이
50% 할인

EVERLAND RESORT
에버랜드
40% 할인

OUTBACK STEAKHOUSE
아웃백
20% 할인

PARIS CROISSANT
파리크라상
최대 15% 할인

CGV*
GOLD CLASS
CGV 골드클래스
55% 할인

새로워진 혜택과 더 커진 할인 올레 전무후무 멤버십

판타스틱4 전에 없던 혜택에 더 커진 할인까지!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최대 15% 할인
VIP회원 기준, 일반회원 최대 10% 할인

캐리비안베이/에버랜드 50~40% 할인
캐리비안베이 입장권 50%(9/1~10/5),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40%, 회원본인 기준

CGV 골드클래스 55% 할인
VIP회원 기준, 2매구매시

아웃백 20% 할인

어메이징 D/C 더 많은 곳에서 더 큰 혜택으로!

외식/테마파크 • 세븐스프링스: 매주 수요일 40% 할인(상시 20%)
2014년 9월 30일 까지 • 롯데월드: 50% 할인 • 서울랜드: 60% 할인

3대 편의점 • GS25/세븐일레븐/미니ストップ
매월 20일, 20% 할인(상시 15% 할인)

VIP 고객 • 스타벅스: 무료커피(연 4회) • 뚜레쥬르: 최대 10% 할인
2014년 9월 30일 까지 • CGV: 무료영화예매(연 6회) • 미스터피자: 15% 할인
포인트 미차감





기아차 유럽형 올 뉴 쏘렌토

현대차 유럽형 신형 i20

쌍용차 Xiv-어드벤처

쌍용차 Xiv-에어

국내 新車, 우린 지금 파리로 간다

‘파리모터쇼’ 내달 2일 개막...유럽시장 공략 가속화 현대기아차, 유럽형 신형 ‘i20’·‘올 뉴 쏘렌토’ 선보여 쌍용차, 양산 콘셉트카 ‘Xiv-에어’·‘어드벤처’ 공개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다음달 2일 열리는 세계 자동차 전시회 ‘2014 파리모터쇼’에 신차를 선보이며 유럽시장 공략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유럽 자동차 시장은 최근 12개월 연속 월별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현대기아차자동차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2005㎡, 2581㎡ 면적의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신 모델을 대거 선보인다.

우선 현대차는 유럽형 신형 ‘i20’를 유럽시장에 처음 공개하고, 이달 중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형 i20는 터키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로, 지난달 인도에서 출시한 인도형 i20와 사양이 같다. 여기에 파노라마 선루프와 통합형 후방카메라, 전면 LED 램프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i30 CNG(압축천연가스)’, ‘i40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인트라드(HED-9)’, 투싼ix 수소 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4종을 선보인다. 또 신형 ‘제네시스’와 ‘벨로스터 티보’ 등 양산차와 ‘i20 WRC 차량’ 등 총 22개 차종을 전시할 계획이다.

기아차는 ‘올 뉴 쏘렌토’를 선보인다. 기아차는 국내 시장에 이어 내년 초에 올 뉴 쏘렌토를 유럽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다절 모델은 물론 2.4 GDI 모델도 라인업에 추가한다.

내년 초 판매예정인 ‘프라이드’와 유럽전략형 모델인 ‘벤가’도 선보인다. 기아차는 이밖에 ‘씨드’, ‘쏘울’, ‘스포티지’, ‘카렌스’ 등 총 23개 차종을 내놓을 계획이다.

쌍용자동차는 내년 초 출시를 앞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100(프로젝트명)의 양산 콘셉트카인 ‘Xiv-에어’와

‘Xiv-어드벤처’를 세계 처음으로 공개한다. 또 쌍용차는 유럽 주력 판매 모델인 ‘코란도C(현지명 코란도)’를 비롯해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현지명 로디우스)’, ‘코란도 스포츠(현지명 액티온 스포츠)’ 등 총 7대의 차종을 선보인다.

글로벌 브랜드 가운데에서는 르노가 14대의 연료로 100km를 달릴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PHV) 이오랩(EOLAB)과 다목적차량(MVP) 에스파스 신 모델을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의 슈퍼 스포츠카 ‘메르세데스-AMG GT’, 폭스바겐의 PHV 모델 ‘골프 GTE’, 8세대 파사트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파리모터쇼에는 국내 업체들을 포함해 총 21개국, 270개의 브랜드가 참여하며 100개 이상의 차종이 처음 공개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LG, 스마트 냉장고 ‘더 똑똑하게’ 업그레이드

식약처와 개발 위한 업무협약 식품정보 제공 등 기능 진화 내년 ‘CES’ 앞두고 개발 박차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냉장고 개발에 나선다. 가전시장이 첨단기술을 입힌 스마트가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양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손잡고 새로운 스마트 냉장고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 냉장고는 높은 가격 등으로 아직 수요가 많지 않지만 양사가 미래 세 먹거리로 부상한 ‘스마트홈’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를 앞두고 있는 만큼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스마트 냉장고 출시가 기대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09년부터 음식물을 보관하는 냉장고 본연의 기능 이외에 인터넷 연결을 통한 △식생활 정보조회 △냉장고 상태 확인 △보관기한 관리 등 첨단 정보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냉장고를 시장에 내놨다. 최근에는 국내 대형마트와 손잡고 냉장고를 통해 식재료를 실시간으로 주문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 LG

전자는 올해 5월을 마지막으로 스마트 냉장고 신모델을 선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이달 16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마트 냉장고 개발을 위한 식품안전정보 제공 및 관계 유지 등을 중심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해 식품정보 제공·관리 및 식자재 구매 등 스마트 냉장고의 기존 기능을 한 단계 진화시키는 한편, 새로운 기능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식약처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식품안전 정보와 양사의 기술적 요소들이 결합할 경우 획기적인 제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냉장고(기술 개발)는 실무 부서에서 스마트홈과 연계해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로 앞으로 출시되는 스마트 냉장고에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식약처는 향후 실무협력을 구성해 스마트 냉장고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양사는 스마트 냉장고 공동개발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 협약은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 공유 및 활용에 국한된 것으로, 양사의 기술표준에 차이가 있어 기술 협력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guty@

넘치는 우유 해법이 없다

재고 1만4896톤 12년만에 최고치 생산늘고 소비줄며 보관시설 부족

원유 과잉 생산이 장기화되면서 우유 재고가 1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우유 제품을 할값에 처분하거나 그냥 내다버리는 한계 상황에 봉착했지만 정작 이를 풀 수 있는 해법은 좀처럼 도출되지 않고 있다.

22일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제품으로 만들고 남은 원유를 말려 보관하는 분유재고는 1만4896톤으로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1만5554톤을 기록했던 분유재고는 7월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으나 8월 들어 다시 생산량이 증가했다.

우유 재고가 줄지 않는 건 원유생산 증가량에 비해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가 올해 1~8월 전체 유제품 매출을 집계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다. 우유 매출은 1.8%, 요구르트 매출은 2.8%, 우유가 들어간 냉장음료 매출은 4.9%나 감소했다.

이러한 제품 매출 감소 추세에 업체들은 거래 농가와 함께 생산량 조절에 나섰다. 대중국 수출마저 줄며 우유 재고는 늘어가는 상황이다.

분유 재고가 늘어나자 이를 보관할 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들은 자체 보유한 분유 저장시설이 넘쳐 외부에서 임대한 창고까지 재고물량이 쌓이며 조만간 재고를 폐기하거나 창고를 빌릴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재고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정부가 해법 모색에 나섰다. 낙농가와 유가공업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주 후반 수급조절협의회를 열고 생산량 감축에 대해 논의한다. 하지만 우유 생산량을 유지하길 원하는 낙농가와 감축해야 한다는 유가공업체가 맞서고 있어 문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철규 기자 yoonck@



어르신 위한 폴더 스마트폰 LG전자 ‘와인스마트’ 출시

LG전자가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한 폴더형 스마트폰 ‘와인스마트’를 3개 통신사를 통해 26일 출시한다. 와인스마트는 업계 최초로 ‘카카오톡’ 전용 물리 버튼을 스마트폰에 적용했다. 또 문자, 주소록, 앨범, 카메라 등 기능들도 전용 물리 버튼으로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다. 중장년층 사용자의 시력을 배려한 UX(사용자환경), 노약자가 위험에 빠졌을 때를 대비한 다양한 ‘안전지원이’ 등의 특화 기능을 강화했다. 3.5인치 LCD 디스플레이, 800만 화소 후면카메라, 1GB 램, 안드로이드 4.4 킷캣이 적용됐고 출고가는 미정이다. 사진제공 LG전자

포스코 타이닉스, 3년만에 흑자 전환 눈앞

미쓰비시에 제품 공급키로 상반기 110만 달러 흑자 기록

동남아시아 시장의 제조업은 대부분 일본 기업이 과점하고 있다. 자동차 부분은 토요타와 덴소, 가전은 소니와 샤포 등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만큼 국내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포스코가 2011년 9월 인수한 태국의 스테인리스강 제조공장 타이닉스는 이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8일 현지에서 만난 오형수 포스코 타이닉스 법인장은 “지난해 9월 이후로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금년도는 상반기까지 110만 달러(약 11억5000만원) 이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법인장은 “하반기 니켈 가격이 변동이 우려되지만 올해는 기밀로 흑자전환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타이닉스는 포스코가 인수한 이후 적자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자동차업체인 미쓰비시를 고객사로 끌어들이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한승용 포스코타이닉스 생산본부장은 “다음달부터 미쓰비시에 스테인리스강 일부 제품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쓰비시는 포스코타이닉스가 일본 기업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첫 사례다. 포스코타이닉스의 경쟁력 강화가 자국 기업 선

호도가 높은 일본 기업을 뚫은 원동력이 된 셈이다.

포스코타이닉스는 지난 2011년 7종의 제품을 생산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산 제품을 18종까지 늘렸다. 2016년에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더 개발해 생산 제품을 24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포스코타이닉스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가야할 길도 멀다. 태국의 스테인리스강 연간 수요는 25만톤 정도다. 그중 포스코타이닉스는 2만톤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오 법인장은 “2016년까지 5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가격과 제품의 공급, 애프터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현지 고객사를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타일랜드(라움)=최재혁 기자 freshphase@

이마트에브리데이 전통시장 내 매장 과일·채소 안판다

상생 프로젝트...신선식품 철수

전통시장 안에서 영업하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에브리데이 매장에서 과일과 채소, 수산물 등 신선식품이 모두 사라진다.

신세계그룹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전통시장 내 이마트에브리데이 점포에서 신선식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점포는 중곡, 일산, 면목, 사당 등 총 4곳으로 해

당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전통시장 상생모델 점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철수 품목은 국산 및 수입과일, 배추·무 등 채소류, 고등어·갈치 등 수산물 등 92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점포 전체 매출의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연간 40억원 규모다. 연간 매출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약 30%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했다.

그를 관계자는 “신선식품 철수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지만, 전통시장 쇼핑 고객수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전통시장과 이마트에브리데이 매출이 모두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한화, 우즈벡 태양광 수주 총력전

12조 프로젝트 전초전...9월 입찰 중기와 컨소시엄 구성 입찰 나서

한화가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총력 대응기로 했다. 이번 사업이 2030년까지 후속 진행되는 12조원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선점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에서다.

22일 한화큐셀코리아는 3억 달러 규모(100MW)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사마르칸트 프로젝트의 입찰 공고를 이르면 9월 말 내고, 당락 결과는 늦어도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컨소시엄 기업과 산업부 간 장구 기능을 하는 태양광산업 협회와 같이 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8월 말에서 미뤄진 입찰 공고가 9월 말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롯해) 국내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태양광 관련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이번 프로젝트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치고는 비교적 적은 규모인 3억 달러 수준임에도 시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사마르칸트 태양광 사업이 앞으로 예정된 12조원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전초전격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LS전선 ‘전력케이블’ 글로벌 공략

카타르 해저 케이블 절반 출하 잠비아·칠레 등에도 공급계약

LS전선이 글로벌 전력 케이블 시장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LS전선은 최근 국내 전력 케이블 수출 사상 최대인 5000억원 규모의 카타르 해저 케이블 연계 프로젝트를 위한 해저 케이블을 LS전선 동해공장에 선적했다. 이번에 출하된 케이블은 총 200km의 절반인 100km로, 무게만 7000톤 수준이다.

LS전선은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기존 아시아, 중동 시장 중심에서 탈피해 전력 산업의 본고장인 유럽, 신시장으로 불리는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지난 6월 아프리카 남부의 잠비아 전력공사(ZESCO)에 500만 달러 규모의 전력 케이블을 공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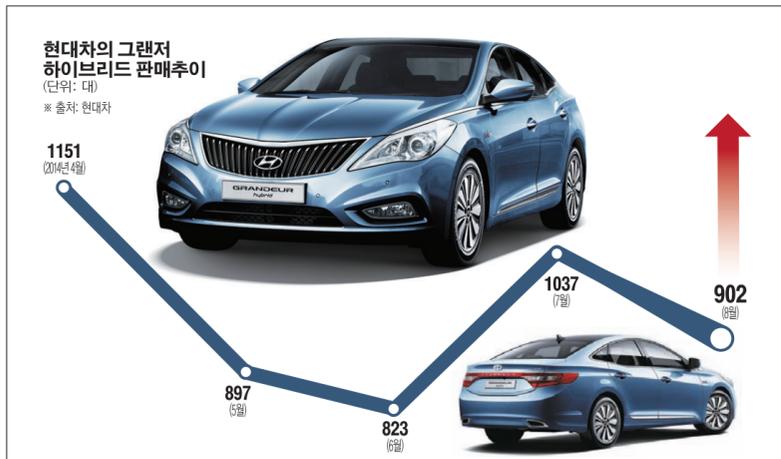
남미 진출도 활발하다. LS전선은 지난 2월 말, 칠레 산티아고시 지하철 프로젝트의 500만 달러 규모의 케이블 공급권을 따냈다. 이어 3월에는 아르헨티나의 북부 전력청과 북동부 전력청에 700만 달러 규모의 지중 케이블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에도 LS전선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전력 수요가 많고,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유럽 시장에서도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LS전선은 2008년 영국에 판매법인을 설립하며 유럽 케이블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2012년과 2013년 프랑스와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고부가가치 케이블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LS전선이 덴마크 전력청에 공급한 HVDC(고압직류송전) 케이블은 대용량의 전력을 최소한의 손실로 전송할 수 있어 최근 차세대 에너지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잘 나가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1만대 돌파 '초입기'

8월까지 국내 누적 판매 8990대
단일 차종으로 외산 전체의 2배
가격·연비·주행성능 3박자 갖춰
대·소형 양극화 속 '쏘나타'는 주춤

에서 판매된 전체 수입 하이브리드 차량은 4524대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한 차종이 팔린 수치에도 못 미친다.

더불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연비 효율성 측면에서도 수입차에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 이 차량의 연비는 16.0km/ℓ로 ES 하이브리드(16.4km/ℓ)와 토요타의 캠리 하이브리드(16.4km/ℓ)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내 승용차 수요가 증형보다는 대형과 소형으로 양극화하고 있는 것도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인기 비결로 꼽힌다. 현대차의 경우 쏘나타의 판매가 주춤한 데 반해 '아반떼'와 '그랜저'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현대차가 최근 '그랜저'와 '제네시스' 사이의 대형차급인 '아슬란'을 내놓은 것도 늘어나는 대형세단 수요를 고려한 전략이다. 소비자에게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연비 효율뿐 아니라 대형세단이라는 이점까지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차량인 셈이다.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연말에 신형 LF쏘나타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된다. LF쏘나타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18.0km/ℓ에 달할 것으로 시장은 관측하고 있다. 또한 LF쏘나타 하이브리드는 최대 370만원의 가격인하 효과를 볼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에 취득세와 소비세 등 270만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에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1만대 판매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추세라면 국내에 출시된 하이브리드 차량 중 사상 최대 판매치를 기록할 것이 유력하다.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올해 1-8월 국내 누적 판매량은 8990대로, 월 평균 1124대가 판매됐다. 업계는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올해 국내 판매량이 1만35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 출시된 하이브리드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은 현대차의 '쏘나타 하이브리드'였다.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지난해 국내에서 1만3398대가 팔렸다.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우수한 가격 경쟁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중대형급 하이브리드 차량인 렉서스의 'ES 하이브리드'는 4950만~6190만원,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 하이브리드'는 8090만원으로 그랜저 하이브리드(3603만원)의 가격을 크게 웃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삼성전자의 '삼성 커브드 사운드바', 사진제공 삼성전자 LG전자의 '14년형 사운드 바', 사진제공 LG전자

TV 몰입감의 완성... '눈' 이어 '귀'까지 사로잡는다 삼성·LG '프리미엄 사운드바' 격돌

고해상도 화면 이어 입체음향 경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소비자들의 '눈'에 이어 '귀'까지 사로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TV를 통해 스포츠 경기나 게임을 즐기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선명한 화질과 높은 몰입감을 제공하는 화면뿐 아니라 고품질 음향을 전달하는 프리미엄 사운드 바(Sound Bar)의 경쟁력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을 겨냥해 스포츠 경기 시청 시 안성맞춤인 '삼성 커브드 사운드 바(HW-H7501)'를 22일부터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 사운드 바가 TV와 같이 휘어져 있어 몰입감을 더욱 증대시키고 강력한 8.1 채널의 공간감 있는 입체음향 효과로 실제 경기장에서 뛰는 듯한 현장감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직선형 사운드 바에 좌·우 2개의 스피커가 추가돼 서라운드와 중저음역대도 강화됐다.

삼성전자 사운드 바의 인기는 판매량에서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증가 추세를 보인 사운드 바의 8월 판매량은 전월 대비 절반 이상 증가했다.

LG전자는 고품질과 세련된 디자인 등 기능과 스타

일을 모두 갖춘 '2014년형 사운드 바(NB5540)'를 주력 제품으로 내놨다. 이 제품은 원음에 가까운 고품질의 음원을 재생하고 본체와 서브우퍼 등 2개의 간결한 구성으로 공간 형태에 맞춰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신개념 오디오 시스템이다. 총 41채널로 구성돼 있으며 320W의 강력한 출력으로 풍부한 입체음향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이 제품은 '데드나트 디자인 어워드 2014'에서 본상을 수상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거실 인테리어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운드 바 물품은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점점 높아지는 TV 해상도에 발맞춰 소리의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도 커지고 있는 것. TV가 PC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IT 기기와 연결되면서 즐길 수 있는 고품질 콘텐츠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불어 TV 두께가 점점 얇아지면서 자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소리의 질이 낮아진 것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히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사운드 바 시장은 2012년 대비 113% 성장했고, 같은 기간 미국도 6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사운드 바 세계시장 규모는 10억 유로(약 1조4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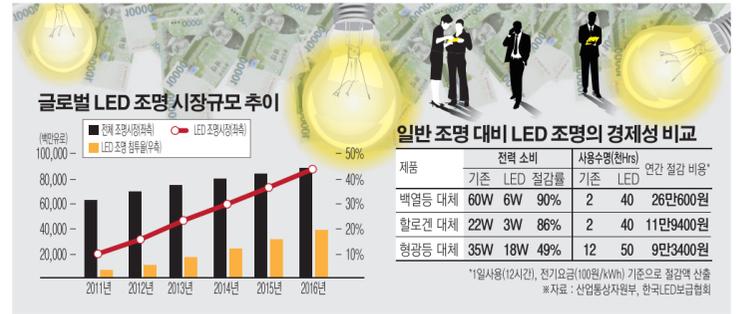
김지영 기자 guty@

e-리포트

불 밝히는 LED

고효율·저전력...친환경 바람 타고 가정 속으로

형광등→LED 교체 시 연 9만원 절약
가격도 5000원대로 낮아져 수요 확산



대형마트에서 형광등 대신 LED(발광다이오드) 전구를 판매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모습이 됐다. 백열전구는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LED조명은 상업·경관용이 주 시장이었으나,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전력소비를 낮출 수 있는 LED조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특히 최근 들어 1만원 이하의 제품이 대거 출시되면서 LED조명의 대중화는 본격화되고 있다.

백킨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조명시장에서 LED조명의 침투율은 2011년 10%에서 지난해 24%로 증가했다. 오는 2015년 그 비중은 3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친환경 정책 기조가 확산되면서 이를 부추기고 있다. LED조명은 백열등과 달리 수은, 납과 같은 환경 오염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유럽은 2009년부터 꾸준히 백열전구 규제를 이어오다 2012년 전면 판매 금지를 시행했다. 아울러 2020년에는 수은 규제도 예정돼 있어 형광등 퇴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LED 조명은 일반 조명 대비 고효율·저전력의 장점이 있어 대체 광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

통상자원부와 한국LED보급협회에 따르면 LED조명으로 교체 시 전력 절감률은 백열등 90%, 할로겐 86%, 형광등 4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절감률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60W 백열전구 1개를 LED전구로 교체했을 시 연간 26만원의 전기요금 절감할 수 있다. 절감비는 전기요금 1kWh당 100원으로 잡고, 1일 12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같은 기준으로 할로겐 조명을 교체하면 11만원, 형광등은 9만원 수준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전구 1개의 절감 효과이니 실내 전체를 LED조명으로 바꾼다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수배로 커진다. 게다가 일반 조명은 수명이 2000시간 정도이나 LED 조명은 4만~5만 시간의 긴 수명을 자랑

제품	전력 소비		사용수명(만시간)		연간 절감 비용*	
	기존	LED	기존	LED		
백열등 대체	60W	6W	90%	2	40	26만6000원
할로겐 대체	22W	3W	86%	2	40	11만9400원
형광등 대체	35W	18W	49%	12	50	9만3400원

한다. 지난해부터 LED조명 제조업체들이 저가 LED 전구를 시장에 선보이면서 교체 비용 대비 효과는 더 높아졌다. 마트가 아웃소싱을 통해 LED 전구를 5000원에 판매했고, 포스코LED도 홈플러스와 함께 5500원에 LED전구를 판매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일반소비자들의 LED조명 수요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ED조명이 보편화할 할 점도 있다. 높은 색온도를 지닌 가정의 조명이 지나치게 차가게 느껴진다는 감성적 불만족이 그것이다. 기존에 익숙했던 형광등이나 백열등의 느낌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살리느냐가 확산의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내 아이의 꿈에 희망을 더합니다

세상 모든 아이는 부모의 희망이기에
LIG 손해보험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자녀보험에 담았습니다
아이의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해지고
그 희망들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LIG 손해보험이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를 튼튼하게, 희망을 든든하게
LIG NEW 희망플러스 자녀(태아)보험

희망플러스 LIG 손해보험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3-2857호(2013.12.30)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LIG타워 www.LIG.co.kr • 고객센터: 1544-0114

코웨이-청호나이스 '커피정수기' 맞대결

청호 '휘카페 티니' 출시에 코웨이도 '한뼨 바리스타' 맞붙
 얼음정수기 특허분쟁 이어 초소형 커피정수기 자존심 대결
 크기·가격대부터 제품 콘셉트까지 흡사... 치열경쟁 불보듯

코웨이와 청호나이스가 초소형 커피정수기 시장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얼음정수기 기술 관련 특허분쟁을 겪고 있는 두 회사는 최근 앞 다퉈 크기를 대폭 줄인 커피정수기 신제품을 출시하며 또 다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는 최근 약 1주일의 간격으로 초소형 커피정수기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들어갔다. 크기에서부터 가격대, 제품 콘셉트까지 거의 흡사한만큼, 두 회사의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포문은 청호나이스가 먼저 열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7월 커피 얼음정수기 '휘카페'를 야심차게 출시한 데 이어, 크기를 대폭 줄인 '휘카페 티니'를 지난 12일 시장에 내놨다. 커피 얼음정수기를 세계 최초로 출시한만큼, 지속적으로 관련 신제품들을 출시해 커피정수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코웨이는 지난 17일 초소형 커피정수기 '한뼨 바리스타'를 출시하며 맞불을 냈다. 기존 코웨이의 인기 제품인 '한뼨' 시리즈에

커피캡슐머신을 결합한 것으로, '국내에서 가장 작은 커피정수기'라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커피정수기 시장 진입은 다소 늦었지만, 크기와 호환성을 무기로 내세우며 청호나이스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양사의 이번 신제품 스펙을 비교하면 거의 흡사하지만, 크기면에서는 코웨이 한뼨 앞섰다는 평가다. 청호나이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휘카페 티니의 크기는 29cm(높이)×49.7cm(길이)×47.4cm(깊이)로, 코웨이 한뼨 바리스타(19.3cm×42.2cm×39.1cm)보다 다소 크다. 초소형 제품군인만큼, 5-10cm 정도의 차이는 소비자 구매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크기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커피캡슐 호환성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 청호나이스 휘카페 티니는 1개 브랜드 제품의 3종 커피캡슐만 사용 가능하지만, 코웨이 한뼨 바리스타는 5개 브랜드의 총 35종 커피캡슐이 사용 가능하다. 캡슐 가격도 청호나이스가 개당 590원으로 700-820원(배송비 포함)인 코웨이 제품보다 저렴했지만, 배송비를 포함하면 673원



코웨이는 지난 17일 초소형 커피정수기 '한뼨 바리스타'를 출시했다. 기존 코웨이의 인기 제품인 '한뼨' 시리즈에 커피캡슐머신을 결합한 것으로, '국내에서 가장 작은 커피정수기'라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으로 가격이 올라가 큰 차이가 없다. 이 밖에 월 렌탈료(4만7000원), 일일불 가격(199만-205만원) 등은 거의 흡사하다.

정수기업계는 올 상반기 얼음정수기 관련 특허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양사가 초소형 커피정수기로 치열한 자존심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청호나이스는 지난 7월 휘카페 신제품 발표회에서도 "커피 얼음정수기와 관련해 각종 특허를 등록해놓은 상태에서 경쟁사(코웨이)가 따라 오긴 힘들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기술력

부분에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기술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청호나이스가 기존 렌탈시장 강자인 코웨이의 벽을 쉽게 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인만큼, 양사의 이번 초소형 커피정수기 경쟁은 또 한번의 자존심 대결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의 영입력, 마케팅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경유 기자 thec98@



영실업 '도봇-어드벤처Y' 손오공 '헬리카봇-펜타스톱'

완구시장 '변신로봇대전'

영실업 '어드벤처Y' 바이클론즈
 손오공·토이트론도 신제품 내놔

국내 완구 시장에 남자 어린이를 겨냥한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변신로봇 완구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영실업은 최근 헬리카봇 변신로봇 '어드벤처Y'를 출시했다. 시장에서 주력하는 자동차의 콘셉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하늘을 나는 헬리카봇의 디자인을 적용해 놀이요소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24일부터 케이블 애니메이션 채널에서 방영되는 '변신자동차 도봇 15기'에 새로운 캐릭터로 등장해 애니메이션 캐릭터로도 활용도가 높아졌다.

영실업은 이외에도 크로스합체 변신로봇 '바이클론즈'도 출시하며 트루랙 전략을 가동했다. 4종의 동물형 로봇이 삼반신과 하반신으로 변형돼 2개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변신하는 제품이다. 기본적인 합체 기능 이외에 삼반신과 하반신의 호환이 가능해 새로운 2개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추가로 조합할 수 있어 어린이들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손오공도 헬리카봇의 라인업을 늘리고 신제품 터닝메카드를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대 자동차의 실제 차량을 모델로 한 헬리카봇은 하반기 5단 합체를 하는 펜타스톱을 주력으로 총 6종을 추가로 발매한다. 터닝메카드는 미니카와 카드를 결합해 변신하는 로봇 완구다. 모바일게임과도 연동해 원소멀티유즈를 실현하고 있다. 토이트론도 전략 배틀 머신 '다칸'을 출시하며 남아 완구 시장에 출시표를 던졌다. 소방차, 불도저, 탱크, 슈퍼카 등을 분석해 만들어진 각 머신들은 풀백이어의 기능을 거꾸로 적용시켜 앞으로 밀어 충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밀어 코인을 획득하고 뒤로 돌아와 승부를 겨루는 완구다. 조성준 기자 tiatio@

SKT '스마트로봇 코딩스쿨'

SK텔레콤은 스마트로봇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 프로그램인 '스마트로봇 코딩스쿨'을 정식 론칭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로봇 코딩스쿨은 스마트로봇 '알버트'와 '아미'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스마트로봇 코딩스쿨의 교육과정은 총 12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프로그램 코딩으로 스마트로봇을 작동·제어하는 기초 단계부터 국어·음악·수학 등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PC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고급 과정까지 학습할 수 있다.

또 12월 중순 이후 전국 70여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스마트로봇 코딩스쿨을 운영한다. 내년까지 총 3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유미 기자 jscc508@

바이오의료·ICT 결합... 벤처 틈새시장 노린다

힐세리온 '초소형 초음파 진단기' 휴이노 '손목시계 혈압측정기' 등 투자기관들 가능성 높이 평가

바이오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결합한 벤처가 블루오션으로 뜨고 있다. 바이오의료는 유망 사업군으로 최근 빛을 보고 있으나, 단순 IT 서비스 벤처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 둘을 결합한 '틈새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22일 벤처캐피탈협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바이오의료 업종에 흘러 들어간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액은 가장 많은 112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수치다. 반면 ICT 제조업

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41% 감소한 900억원이, ICT 서비스업에는 23% 떨어진 660억원이 투자됐다.

바이오의료 벤처의 우세현상은 업체들이 상장 행렬을 이어가며 높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미 수십여곳이 증권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상장하거나 상장 예정인 곳만해도 10곳이 넘는다. 그러나 ICT 벤처는 10곳 가운데 8-9곳이 문을 닫는다는 점에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이에 바이오의료와 ICT 기술을 결합한 업체가 최근 벤처캐피탈의 이목을 잡아끌고 있다.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제조회사 힐세리온이 대표적이다. 힐세리온은 스마트폰이나 패드, 태블릿 등을 활용한 초소형 초음파진단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다. 특히 힐세

리온은 초소형 초음파진단기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샘플제작과 보급이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투자기관들이 보는 힐세리온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마젤란투자기술과 알벤처투자, 소프트뱅크벤처스, 서울투자파트너스 등은 힐세리온에 추가투자를 결정, 모두 40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기술기반업체만 선별해 투자하기로 유명한 퓨처플레이는 최근 휴이노에 투자했다. 휴이노는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 압박 붕대와 같은 '커피'없이 생체신호만으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보유한 회사다. 현재 휴이노는 손목시계 형태의 생체신호 혈압측정기 양산을 준비중이다. 제품은 이르면 내년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박성제 기자 psj@

중소 R&D 평가기간 2달→1주일

중기청 18년 만에 시스템 개편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달린평가시스템(OASYS·이하 오아시스)'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2개월이나 걸렸던 기술개발과제 평가 기간도 불과 1주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기술개발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 R&D 평가 공정성·전문성 확보전략'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오아시스 도입이다. 오아시스는 현행 오프라인 평가(폐쇄형)를 온라인 평가(개방형)으로 전환해 선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관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동안 매년 상반기

3개월간 수요가 집중되는 기술개발과제로 인해 평가기간에 제약 받는 데다, 이에 면밀한 평가도 부족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97년 이후 18년 만에 중소기업 R&D 평가시스템이 전면 바뀌게 된 셈이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면서 중기청은 향후 평가위원 매칭, 평가 방식도 한층 투명하게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또 평가 인센티브 도입, 평가위원 관리 강화 등으로 전문성도 함께 제고해나가기로 했다. 평가 과정 역시 온라인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R&D 부경심사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공익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신고 보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경유 기자 thec98@

미디어통

MEDIA TONG

www.mediatong.com

포트폴리오인재관

이제 스킬과 이력서, 포트폴리오까지 한 눈에 확인하세요!

기업PR관

미디어 기업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방송가맛집

우리회사, 내가 꿈꾸는 직장의 맛집을 소개합니다.

교육기관 인재정보

우리 교육기관의 우수 인재를 소개합니다.

이제 미디어통을 스마트폰에서 만나세요! 미디어통 앱 다운로드

고객센터 02)783-1580 | helpdesk@mediatong.com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주)미디어네이티브

현대증권, 단 한 장의 카드로 세상 카드를 압도하다!



able Card

카드생활의 Remake Asset 카드생활에서부터 자산관리가 시작됩니다



할인 서비스 4가지 중 내가 선택한 하나의 서비스에 집중된 혜택을!

- 선택1) SK주유소에서 주유 시 OK 캐시백 16배 적립(80원/L)
 - 선택2) 대형할인점 15% 할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 선택3) 백화점 15% 할인(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롯데)
 - 선택4) 전국택시/KTX 15% 할인
- *연 4회 변경 가능, 선택 1~4)별 월간할인한도 이외에 전월 사용 실적에 따른 할인한도 차등 적용
*15% 할인의 경우 횟수(일/월) 및 최대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포인트 서비스 OK캐시백 포인트와 함께 재 탄생한 able point!

- 현대증권 포인트와 OK캐시백 포인트가 합산되어 사용 및 적립되는 포인트제도
- OK캐시백 포인트를 CMA통장에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현금상환서비스
- able point는 전국 45,000여 개의 OK캐시백 가맹점, able 포인트를, 현대증권 업무수수료로 결제 가능

금융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출금,이체,송금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 전국 모든 은행 CD/ATM을 이용한 출금 및 이체 수수료 무료
 -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의 당사 및 타사 이체 수수료 무료
 - 당사ATM을 이용한 출금 및 이체 수수료 무료
 - 지점 창구 송금 수수료 무료
- *전월 실적 10만원 이상 시 적용

특별 서비스 체크카드에 신용카드의 혜택을 입히다!

- 전국 50여개의 able 멤버십 제휴처에서 최대 40%까지 현장 할인
- (서비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며, 사업장 별 세부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카드문의 : 1588-6611 홈페이지 : www.hdable.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제 제 14-0455호(2014년 2월 6일~2015년 1월 23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한전부지 개발, 삼성물산 웃는 이유

현대차, 총 공사비 3조 프로젝트
삼성동·잠실 등 강남재개발 탄력
삼성, 재건축 수주물량 많아 수혜
파르나스호텔 매각 중인 GS건설
지분가치 상승 가능성에 '골머리'

강남 3구 기준 재건축 수주 잔고

건설사	건수	면적
삼성물산	17건	4만18000가구
현대산업개발	4건	2100가구
GS건설	3건	4800가구
현대건설	2건	8000가구
대우건설	2건	1500가구
대림산업	2건	1100가구

* 출처 부동산114



사비만 3조원에 달하는 추산되고 있어 실적 성장 등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뿐 시공권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면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모두 그룹사인 만큼 누가 시공권을 가져가더라도 그룹에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특히 삼성동과 압

구정동, 청담동, 잠실동 인근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 기대된다"면서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강남지역 재건축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라 연구원은 삼성물산의 수혜를 점치고 있다. 삼성전자의 한전 부지 매입 실패로 시공권 확보는 불가능해졌지만 강남3구의 독보적 재건축 수주잔고(17건, 4만18000세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의 현재 총 재건축·재개발 수주잔고는 10조원으로 강남3구 외의 잔고 역시 대부분 서울 지역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3구 기준으로 삼성물산 17건(4만18000가구), 현대산업개발 4건(2100가구), GS건설 3건(4800가구), 현대건설 2건(8000가구), 대우건설 2건(1500가구), 대림산업 2건(1100가구)의 재건축 수주잔고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GS건설은 웃을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GS건설은 재부구조 개선을 위해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등을 소유한 파르나스호텔 지분 매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사모펀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당초 7000억~8000억원으로 예상됐던 지분 가치다. 현대차그룹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경우 이 가치는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허정수 GS그룹 회장 등이 파르나스호텔에 애착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옛 서울의료원 터, 이번엔 삼성이?

서울시, 내달 감정평가 매각공고 예정
삼성생명 사들인 한국감정원 부지 옆
연계 개발 위해 입찰 참여할 가능성도

옛 서울의료원 부지 위치도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를 10조원이 넘는 거액으로 사들이면서 내달 진행 예정인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오는 10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곧바로 최고가 낙찰제로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이전 부지와 관련 가이드라인에 맞춰 현재 2층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7중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용적률 400%-80m 이하)으로 변경하는 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만약 서울의료원 부지가 현대차그룹이 한전 부지를 인수한 가격에 팔릴 경우 서울시는 4조원이 넘는 돈을 확보하게 된다. 부채질감에 힘을 쏟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반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서울의료원 부지가 한전 부지만큼 상징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한전 부지와 연계 개발이 필요해 인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그 가격에 팔리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앞서 한국감정원 부지를 구입한 삼성이 한국의료원 부지와 연계해 개발에 나서기 위해 입찰에 뛰어든 것이라는 의견이 나

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삼성생명은 한국감정원 부지를 2328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한국감정원 부지는 전체 1만988.5㎡(3329평)로 삼성은 3.3㎡당 7003만원에 사들였다. 서울의료원 부지의 올해 5월 31일 기준 공시지가는 3.3㎡당 4363만원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 감정원 부지보다는 다소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서울의료원 부지 위치가 한전 부지보다는 감정원 부지에 가까운 만큼 이를 잡기 위해 삼성이 과감한 배팅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현대차그룹도 일대 개발을 완성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에 또다시 과감히 참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거금을 투입한 상황에서 또 다시 거액이 들어가는 입찰에 참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많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그룹 내에서도 필수인원 들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9·1대책 효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 9주째 상승

0.15% 오르며 2009년 이후 최고 상승률
양천 0.42%·강남 0.28%·송파 0.27% 순

대출규제 완화로 이어 9·1대책까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에 훈풍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5% 상승했다.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상승가도를 달렸던 올해 초 시장과 비교해 상승폭이 더 커졌다.

주택가격에 대한 저점 인식 확산과 재건축 연한 단축의 수혜지로 꼽히는 양천, 노원 등지에서 매매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서울은 지난 2009년 6월 마지막 주(0.16%) 이후 가장 높은 주간변동률을 기록했다. 신도시(0.05%)와 경기인천(0.04%) 역시 훈풍이 이어지

며 상승했다.

서울은 양천(0.42%), 강남(0.28%), 송파(0.27%), 광진(0.24%), 강동(0.21%), 강서(0.16%), 강북(0.14%), 서초(0.13%) 순으로 상승했다. 양천은 재건축 연한 단축 발표 이후 상승세가 계속됐다.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4단지, 목동 목동신시가지 7단지 등이 1000만~3000만원가량 올랐다. 강남은 개포동 시영, 대치동 은마, 압구정동 신현대 등이 500만~3000만원가량 올랐다.

김은선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추석 명절 연휴 이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현재의 상승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매물 회수와 가격 상승으로 매도자-매수자 간 희망 가격차가 커 거래 시장은 좀 더 지켜봐야겠다"며 추격 매수세가 주춤해질 경우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거래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금주의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연락처
9/22 (월)	접수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북혁신A9(국민임대) 1,2,3순위 (~9/23)	1600-1004
	발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혁신나인 1순위	1670-8892
	계약	세종	세종시	새롬동	세종금성백조메이저M10블록 (~9/24)	1899-2006
9/23 (화)	접수	충남	천안시	불당동	천안불당3차호반베르디움	0212007-7000
	발표	충남	천안시	불당동	천안불당5차호반베르디움	1899-8864
	계약	대구	달성군	옥포면	대구옥포이진캐슬 1순위	0531632-3993
9/24 (수)	접수	경기	용인시	역북동	용인역북1지구A1블록우남퍼스트빌 (~9/25)	1588-8034
	발표	경기	용인시	역북동	용인역북1지구A2블록우남퍼스트빌 (~9/25)	1588-8034
	계약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명지국제신도시B6블록 호반베르디움2차 (~9/25)	051271-8855
9/25 (목)	접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회차) 1,2순위	1600-9099
	발표	경기	평택시	평성동	평택브라운스톤힐프리스 1,2순위	021283-6868
	계약	경기	평택시	평성동	평택브라운스톤힐프리스 1,2순위	021283-6868
9/26 (금)	접수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금강펜테리움더스퀘어3순위	1899-8960
	발표	경북	구미시	선산읍	구미교리e편한세상 1순위	054462-5511
	계약	경북	구미시	선산읍	구미교리e편한세상 1순위	054462-5511

※(주) 1순위는 오피스텔 (주)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
※자료: 부동산114

9월 넷째 주에는 1만1228가구가 청약접수를 시작하며 가을 분양 성수기에 돌입한다. 민간분양은 △서울 서초 '아크로리버파크(2회차)' △경기 용인 '기흥역롯데캐슬에이시티' △부산 부산진구 '금강펜테리움더스퀘어' △경남 양산 '남양산역반도유보라6차' 등 전국 13개 단지 7599가구가.

이 외 하남미사보금자리(A8)에 공공분양 물량이 공급되며 전북과 대구 지역에서는 공공임대 물량이 선을 보인다.

주말 모델하우스도 전국 10개 사업장이 문을 열며 가을 분양시장이 풍성해질 전망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복합문화공간

공연 · 연주회 · 전시 · 런칭쇼 · 세미나 · 웨딩

총면적 12,000 제곱미터의 파티오나인은 50석부터 1,000석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세미나에서 패션쇼, 박람회까지 어떠한 형태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연주회 및 공연

두타 패션쇼

삼성전자 신제품 전시

볼거리 향수 런칭쇼

세미나 및 포럼

국내 최상급의 복합문화공간 "파티오나인"

예약 : T. 02-517-7080-1, 02-517-7070 / www.patio9.com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6-24 파티오나인

뉴욕서 '화려한 데뷔' 알리바바, 주가 더 오른다

글로벌 리포트

중 "대규모 경기부양책 없다"

218억달러 조달 '사상 최대' 첫날 공모가보다 38% 올라 시총 아마존·페북 등 제쳐
올 2분기 영업이익률 43% 성장 모멘텀 강해 낙관적

알리바바그룹출당 개요
(2016년 3월 실적 대비)

설립	1999년
직원	2만16845명
시가총액	2314억 달러
순이익률	54.39%
영업이익률	48.10%
연 매출	93.6억 달러
연 EBITDA	48.3억 달러
주가수익비율(PER)	39.7%



주요 IT기업 시가 총액
단위: 억 달러

애플	6045
구글	4060
마이크로소프트	3916
알리바바	2314
페이스북	2016
삼성전자	1706
아마존	1530
이베이	650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 출당이 뉴욕증시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알리바바는 1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첫 날 공모가 대비 36% 급등한 92.70달러로 거래를 시작해, 38.07% 오른 93.89달러로 마감했다. 전일 결정된 공모가는 68달러였다.

주가는 장 중 99.70달러까지 오르면서 100달러선을 넘보기도 했다. 시가총액은 2314억 달러(약 240조원)를 기록하며, 경쟁업체인 아마존(1530억 달러)은 물론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2020억 달러), 세계 1위 스마트폰업체 삼성전자(1706억 달러)도 제쳤다.

알리바바는 이번 기업공개(IPO)에서 미국 증시 사상 최대인 218억 달러를 조달했다. 알리바바가 이른바 '대박'을 치면서 중국 최대 갑부인 마윈 회장의 재산은 265억

달러로 늘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마 회장은 312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리카싱 정중그룹 회장에 이어 아시아 2대 갑부 자리에 올랐다. 전 세계 기준으로는 '해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261억 달러)를 제치고 23번째 갑부가 됐다.

마 회장의 재산은 한국 최대 부자인 이 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112억 달러에 비하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알리바바의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알리바바는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구매자는 2억7900만명, 판매자는 850만명에 이른다. 알리바바의 지난 2분기 매출 성장률은 46%, 영업이익률은 43%를 각각 기록했다.

피터 루즈 체이스인베스트먼트트카운슬 대표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상

장 첫날 주가 폭등은 투자자들이 알리바바의 화려한 미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조셉 슈스터 IPO슈스터 창업자 역시 "단기적으로 알리바바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라면 "매우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유세프 스킨리 캔터피츠제럴드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등급을 '매수'로 책정했다. 또 12개월 목표주가로 90달러를 제시했지만, 개장과 동시에 깨졌다.

스킨리 애널리스트는 "알리바바는 고속 성장하는 중국 온라인산업에서 최고의 길 가고 있다"라면서 "온라인 상거래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알리바바가 차별화된 가격 모델과 강력한 브랜드, 엄청난 스케일에 힘입

어 경쟁업체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스킨리는 평가했다. 그는 알리바바의 주가가 그리 낮은 편은 아니지만 회사의 성장과 수익성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크게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 회장 등 불만 요소가 많아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알리바바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들은 이사 선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일부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막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마 회장 등 소수의 주요 주주들이 경영을 독점하고 있으며, 알리바바그룹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알리바바 파트너십'이 사외 구성과 관련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마켓워치는 평가했다.

이들 '핵심 세력'은 지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주주들의 동의 없

이 이사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선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샌디 링컨 BMO에셋매니지먼트 수석 투자전략가는 "주주로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알리바바는 중국 회사지만 세금 회피를 위해 케이먼군도에 본사를 설립한 데다, 최대주주는 34%의 지분을 보유한 일본 소프트뱅크이다.

루시안 벤츠허버트대학 로스쿨 교수는 "지배구조 이슈는 현 주가의 경제적 가치에 나타나야 한다"라면서 "앞으로 창출될 가치가 주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낮다면, 이는 현재 주가에도 반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중국 일부 경제지표에 흔들리지 않고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21일(현지시간) 중국 현 지인론들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성장세 둔화 현상에 따라 일부에서 기대하는 경기부양은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날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은 인민은행 웹사이트에 "중국정부가 경제지표 하나 때문에 경제정책을 극적으로 바꾸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성명을 냈다.

특히 그는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용한 대대적인 부양정책이 과잉생산과 환경오염 그리고 지방정부 부채 급증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더이상 공공재정을 대규모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성장전략에 의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리커창 중국 총리도 중국 국무원 웹사이트에서 "특정 목표를 겨냥한 통화안정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리 총리는 "중국 정부는 지난 1년간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특정목표를 겨냥한 통화안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20 "수요부진 극복 위해 대응"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세계 경제의 지속적 수요부진과 구조적 성장제약 요인을 없애고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21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또 향후 5년간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수준에 대비해 2% 이상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성장전략'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호주 캔버라에서 열려 G20 회의의 장국인 호주와 미국, 한국을 비롯한 G20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속적으로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통화정책을 펴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적기에 해결하는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운용한다는 것에 G20 회원국들이 합의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양질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GII)'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 이번 회의의 핵심이제인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에 대해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Early Adopters Group) 참여를 공표해 조세개혁 논의를 순수수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기로 했다.

중, 영유권 갈등에 日국채 매도

중국의 일본 국채 매도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엔화 약세와 더불어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21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신문은 일본 재무성 통계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일본 국채 6600억엔(약 6조 3200억엔)을 순매도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의 4000억엔에 비해 크게 증가한 추세다. 반면 중국이 올해 순매수한 미국 국채는 800억 달러 이상이다.

유류 분쟁위기로 시장 불안이 고조됐던 2010년 상반기에 중국은 보유외화 분산 투자를 위해 일본 국채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일본 국채 매도를 순매도하고 있다.

가라카마 다이스케 일본 미즈호은행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엔화 가치가 중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중국의 일본 국채 매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오위다오 영유권과 과거사 문제를 두고 중·일 관계가 악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012년 9월 다오위다오를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유화하면서 중·일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되기 시작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이 일본 국채를 대거 매도할 경우 금리가 상승해 일본에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BOJ가 국채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일본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굳어지는 '달러 강세' 美 다국적기업 울상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가치 최근 3개월새 6% 이상 올라
해외시장 비중 큰 나이키 등 환율부담에 실적 부진 전망



달러 강세가 해외 사업 비중이 큰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을 옥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E달러인덱스는 지난주 0.6% 올라 84.73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 6월 이후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긴축, 일본은 행(BOJ)은 경기부양으로 양측의 통화정책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21일(현지시간) 마켓워치는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에 편입된 30개 기업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내놓는 스포츠용품업체 나이키의 실적 이 해외시장 노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요기업들의 실적을 가능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이키가 오는 25일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달러 강세 영향으로 해외 사업 비중이 큰 소비재 제품 제조기업의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향후 수개월 동안 소비재 기업들의 매출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니퍼 데머리스콧의 마크 루치니 최고 투자전략가는 "환율이 매우 걱정된다"면서 "다국적 기업에 달러 강세는 매출 성장에 대한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ICE달러인덱스는 지난 6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6% 이상 올랐다. 지난 3월 ICE달러인덱스가 지금보다 5% 이상 낮았지만, 당시 나이키는 자사의 실적이 달러 강세로 부진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투자 전문가인 서비스해나금융그룹의 크리스 스페지나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나이키의 올해 주당순이익 전망을 종전보다 2센트 낮춘 3.31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페지나는 "나이키는 2015 회계연도 2분기(9-11월)에 달러 강세 역풍을 가장 강하게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아이폰6 흥행 공급에 달렸다"

일부 매장선 매진 사태...첫 주말에 1000만대 넘어야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첫 주말 판매가 1000만대는 넘어야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바클레이스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차세대 아이폰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USA투데이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가 전문가들은 애플이 8년 연속 아이폰 판매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코니 사코나기 샌프란시스코 애널리스트는 아이폰6·6플러스의 첫 주말 판매

량을 700만~800만대로 전망했다. 팀 바저린 크리에이티브스트래티지스 애널리스트는 아이폰6·6플러스의 첫 주말 판매량을 670만대로 예상했다.

애플이 미국 전역의 애플 스토어에서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판매를 시작한 지난 19일 일부 매장에서 매진 사태가 벌어졌다.

5.5인치 화면의 아이폰6플러스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매진됐고, 일부 매장에서는 4.7인치의 아이폰6 역시 재고가 바닥났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인도 전통 춤 21일(현지시간) 인도 서부 도시 아마다바드에서 전통 의상을 갖추어 입을 여성들이 인도 힌두교의 대표적인 축제 '나브라트'를 앞두고 가라바 춤 연습을 하고 있다. 축제는 오는 25일부터 9일 밤 연속 진행된다. 아마다바드/AP연합뉴스

"美출구전략 역풍? 亞 엑소더스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출구전략 우려에도 아시아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적 전망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달 아시아 신흥국 증시와 채권시장에 97억 달러(약 10조1300억원)의 자본이 순유입됐다고 2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증시·채권시장 10조원 순유입 유럽·중동·阿 순유출 대조적
中·인도 경제 펀더멘털 강하고 저평가된 자산가치도 매력적



이 7월의 233억 달러에서 줄어든 것이나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신흥국들에서 자본이 순유출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WSJ는 전했다.

중국과 인도 지도자들의 경제개혁 추진 기대감과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른 경제성장세 등에 힘입어 아시아 증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개월간 MSCI아시아지수(일본 제외)는 2.4% 올라 같은 기간 MSCI신흥시장지수 상승률 0.4%를 6배 웃도는 상승폭을 나타냈다.

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미국 증시 S&P500지수(2.6%)와도 비슷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연준은 지난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에서 양적완화 10월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하다고 보

의 중론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찰스 콜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각국 경제는 일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수요회복 혜택을 입고 있다"며 "우리는 아시아로의 자금유입이 견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베어링자산운용의 아제이 아르갈인 도증시 부문 대표는 "인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했다"며 "연준 금리 인상 충격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스탠다드앤드포터스와 알라이언스벤처스 타이 등 투자회사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자본개방이 비교적 폐쇄적이기 때문에 미국발 충격에서 경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주식이 비교적 저평가된 것도 매력적이라고 WSJ는 덧붙였다.

일본도 엔화 가치가 최근 미국 달러화에 대해 6년래 최저 수준에서 움직이는 등 엔저에 힘입어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 일본 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올 들어 5.8% 올라 지난 19일에는 7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배준호 기자 baeh94@

기업과 스타 CJ푸드빌 '뚜레쥬르' 모델 김수현

'별그대' 中 열풍 타고 매출 20~70%↑ 대박

"김수현의 입간판 효과가 크지요. 늘 손님들 눈에 잘 띄게 세워놓습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동 뚜레쥬르의 한 점원의 말이다. "김수현의 인기 폭발로 중국의 뚜레쥬르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중국 광고대행사 YC스페이스 오해령 대표의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시작해 2월 27일 끝난 '별에서 온 그대' 중국 광풍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물론 방송사, 제작사 그리고 작가 박지은, 연출자 장태우 PD, 연기자 김수현과 전지현일 것이다. 또 있다. 바로 CJ푸드빌의 뚜레쥬르다.

김수현은 국내에서 인기를 얻었지만 한류스타로서 인기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일본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지만 중국에선 그다지 큰 인기를 얻지 못한 상황이었다. 중국에선 단연 이인호의 인기가 높았고 송해고, 박해진, 장동건, 추지현, 장나라, 장서희 등이 대중성 높은 한류스타로 각광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일부 사람들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현을 다른 한류 스타로 교체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 광고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다. 그런데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이(爱奇艺) 등을 통해 서비스되면서 폭발적 반응을 일으켰다. 규제 등으로 TV 방송은 못하고 인터넷 동영상으로만 내보냈는데 '별그대'는 조회건수 30억건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CCTV 등 언론에서 집중보도하고 고위관료까지 '별그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는 등 중국에서 열기가 상상을 초월했다. 문화현상을 넘어 사회적 현상까지 변했다. 또한 '별그대'는 라면 매출 상승 등 경제적 효과도 대단했다.

특히 '별그대' 팬의 다수가 도시에 사는 20~30대 젊은 여성, 즉 빵과 과자를 많이 소비하는 연령층이 압도적이어서 김수현이 모델로 나선 뚜레쥬르는 그야말로 뜻하지 않은 대박을 기록하게 됐다. CJ푸드빌이 지난 3월 31일 베이징 왕징에 문을 연 '뚜레쥬르 브랑제리 & 비스트로'의 경우 연일 1000명 이 넘는 고객이 방문하며 최고 매출기록을 경신하는 등 김수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뚜레쥬르 매장은 김수현 효과로 20~70% 매출 상승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상승뿐만 아니라 매장 확대와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도 모델 김수현의 효과가 대단했다.

이때부터 김수현의 모델 교체에 요구하던 중국의 점주들도 입장을 바꿔 김수현 모델 잔류를 강력히 요구하는 못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연예인 스타를 모델로 이용하는 기업은 스타의 행보나 출연하는 작품의 승패에 따라 매출에서부터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까지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최근 들어 한국 스타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거수 일투족이 관심을 끌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중국에서 인지도가 낮았던 김수현이 '별그대' 선봉으로 인해 CJ는 중국에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모델 김수현 때문이다. 물론 이 병헌, 황수정처럼 스캔들이나 사회적 물의를 인해 모델로 나선 기업의 이미지까지 추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CJ는 모델 김수현으로 인해 대박을 기록한 셈이다.



배국남 문화경제연구원 겸 문화부장 knbae@

이민화 칼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한국의 창조교육센터

을 설립했다. 미국의 기술 융합교육인 STEM교육으로는 미래 리더 양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STEM 교육을 넘어, 미래 사회의 특이점에 대비한 미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융합기술과 미래 사회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고 있다. 10 주간의 장기 과정, 9일간의 단기 과정, 분야별 지역별 특화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도 특이점 대학을 넘어서는 창조교육센터가 요구된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조성과 기업이 정신을 융합하는 과정이다.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인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미래학, 인문학, 융합기술, 지식재산,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의 문제를 푸는 프로젝트 학습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초중고 교육은 물론, 대학 과정, 일반인 과정 등 다양한 과정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량 교육(MOOC) 과정을 통하여 전국의 교육기관과 공유하는 것이다. 이제 교육의 핵심은 반복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반복되지 않는 콘텐츠로 이동해야 한다. 생산의 아웃소싱과 같이 콘텐츠 교육은 아웃소싱된다. 그런 관점에서 MOOC가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의견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기업이 정신 백일장인 해커톤 대회, 창업 캠프(Boot Camp) 등이 결합돼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 창업가와 사내 기업가들이 속출하게 되고 그들의 집단 지능이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이곳은 다양한 모임들이 활성화되는 공유 공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창조교육센터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선 장소는 한적한 시골이 아니라 거대 도시에 있어야 한다. 거대 도시가 제공하는 공간 창조성과 결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맥락적 사고는 왕성한 상호작용에서 비롯되고 접근성과 즐거움이 전제가 된다.

창조교육센터는 시공간 자체가 미래 사회의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MIT의 미디어랩은 공간의 창조성을 중요시한다. 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 공간은 계단식 교육장에서 호텔 연회장과 같은 구조로 변모해야 한다. 미래 교육의 방향인 교육3.0의 개념인 'Less teaching, more learning'은 상호작용이 왕성한 공간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교실과 더불어 학습하는 스마트 플레어의 개념은 터치 스크린의 벽면에서 전 세계와 온라인 소통으로 구현될 것이다. 미래 학생들이 생각하는 개념들이 창조교육 공간에 최대한 많이 반영될 때 창조교육은 뜻을 피울 것이다.

창조교육센터에서는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시공간이 초연결 구조로 결합돼야 한다. 오픈 소스와 개방 플랫폼을 통하여 스스로의 미래 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아있는 창조교육을 진화시켜 나갈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갈 창조교육센터를 꿈꿔 본다.

온라인 와글와글

우유 재고 12년 만에 최고치...근데 우윳값은 왜?

○...이상기후에 따른 우유 과잉 생산이 장기화되며 우유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네티즌들은 "재고가 넘쳐도 우유 가격은 왜 안 떨어지는데?", "아 우유 마시고 싶다. 너무 비싸서 우유도 못 마신 지 오래 됐네요", "자업자득이다. 우유업계, 자기 배만 채울 줄 알았지, 언제 낙농업 하는 사람들 생



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을 강요해 남녀 차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교육하는 곳에서 저렇게 키우니까 우리나라 학생들 자립심이 떨어지지", "대학생이면 성인인데 부모님 허락이 아니라니? 이걸 스스로 대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밀바닥으로 내리는 행위 아닌가?", "세상

각한 적 없나?", "씩어서 버릴 지경까지 됐는데 우유 가격이 왜 오르나?", "아직 늦지 않았으니 '싱글맘'이나 미혼모들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유값이라도 벌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애 키우는 사람들에게 엄가로 공급할 생각은 없는가?" 등 대체로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이 뒤송송한데 솔직히 자정이면 기속사로 들어와야지, "난 여자인데, 저런 제도 좋은 것 같다. 기속사에 있다고 거짓말하고 외박하다가 사고라도 나거나 다치면? 기속사 탓할 부모들도 있을 것이다", "본인 안전 지켜주려고 만든 규율인데 기속사에 살고 싶으면 그 정도는 감수하자"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여자대학 기속사들이 남녀공학대학 기속사

오늘의 배국남

www.baekn.com

'하숙 24번지' 7명의 젊은피 이끄는 김광규



배국남닷컴은 최근 김광규를 만났다. 김광규는 23일 첫 방송되는 MBC에브리원 '하숙 24번지'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40대 노총각 역을 맡는다. 김광규는 "혼자 살다가 젊은 친구들과 함께하며 젊은 피를 받을 것 같아 정말 기분 좋고 영광이다. 20대에 군입대는 기본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그는 극중 누구보다 진지하지만 매번 풀이 우습게 되고 마는 허당이나, 과거엔 카사노바로 자신도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뒤, 자식 찾기에 나서서 인물이다. 김광규는 김사은, 주얼리 박세미, 빅스 캔, 제아 동준, 빅플로 하이탑, 타이니지 도희, 레인보우 조현우 가운데 자신의 자식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김광규는 많은 아이돌 그룹 멤버와 함께 하는 점에 대해 "사실 김동준 말고는 다 모르는 친구였다. 앞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제가 잠깐 카메오로 출연했기에 도희만 알고 있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알아가는 과정"이라며 "이 친구들은 나이가 들고 저는 점차 젊어지는 방향으로 활영 내내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치를 드러냈다. 이어 김광규는 도희에 대해 "실제 딸로 삼고 싶다. 내가 머리를 가리면 도희와 닮았다"며 도희와 얼굴을 나란히 하며 비교하는 모습으로 현장에 웃음을 자아냈다. 아울러 김광규는 극중 탈북자 역인 하이탑의 연기에 대해 호평했다. 김광규는 "MBC '더킹 투하츠'에 출연했던) 이승기가 온 줄 알았다. 캐릭터를 위해 체중을 10kg이나 감량해 지금은 55kg이 나간다고 하더라. 박세미도 처음 연기를 하는데, 때리는 신이나 욕하는 신을 실감나게 소화해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lee@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

- 1 아이폰6·플러스, 첫 주말 1000만대 이상 팔려야 '대박'
- 2 北 김정은 조모 김정숙 사망 65주기 대대적 추모 분위기
- 3 "온실가스 배출량 사상 최대...30년래 지구온도 2℃ 상승"
- 4 알리바바 美증시 상장 '대박'... "주가 더 갈까?"
- 5 김승연 회장, 첫 공식행보는 인천AG 아돌 경기 응원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전문생산 전문업체

받는분께 강한 만족감을 드리는 꼭 필요한 선물!! G&SG에서 선물하세요~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광고에 게재된 로고나 상호는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입니다.

NAVER 지앤에스지

데스크 칼럼

非朴의 저항에 저항하고 싶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빅맨' 이재오 의원이 17일 목에 핏대를 박박 세워가며 여권의 행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회동에 심사가 비...



이 은 호 경제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이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만드는 건 당연하다. 나아가 그는 의에 따라 관련 언급을 하는 것도 지당하다. 그런데 이걸 두고 '일사불란' 운운하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다. 이 의원의 비판은 교육부가 각급 학교 교원에게 세월호 추모 리본을 달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한 데도 미쳤...

간 혼란에 빠뜨리는 건 '정치적 의도' 외엔 해석이 불가능하다. 결국 지극히 순교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교사들이 가까이 리본까지 달아가면서 지지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행동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행동이 정치적 삽질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적 책임을 규정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행정의 책임을 진 교육부라면 당연히 막아야 한다. 당최 이해 못할 말을 하고 나선 건 이 의원 혼자 아니었다. 같은 비주류인 김태호 최고위원도 여기에 가세했다. 김...

객석

부지런한 투자자, 게으른 투자자



정 채 옥 금융투자협회 프리보드관리실 차장

증권시장의 에너지를 곁에서 지켜보며 살아온 나는 투자의 주인공 못지 않게 가슴 조이고 때로는 기뻐하며, 새벽녘의 다우지수에 귀를 기울이고 주말이나 긴 명절 때는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 뉴스에 안테나를 세우곤 한다. 특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 보유종목과의 연관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투자자의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반사적 행동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를 투자자의 본능적 투자 자세로 보자. 그렇다면 후천적 투자자세는 어떤 것일까? 바로 배우는 일이다. 요즘 경기불황에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크다고 한다. 남의 말만 듣고 실행만 달려들 사람, 기본적인 지식 없이 뛰어든 사람, 성급한 마음에 손 뻗...

사람...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은 그 분야에 대한 기본적 지식 없이 덤벼드는 것이다. 쉽게 지적되곤 하는 것이 운동인구와 연령대, 주변의 상관 및 (본인이 계획한) 업종분포, 시대적 흐름(유행) 등등은 후천적 기본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투자는 자기판단과 책임 하에'라는 투자자의 책임을 강조한 말이 있다. 변화무쌍한 속전속결의 시대에 살면서 멀쩡한 기업이 일순간 변을 당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업선전 상장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은 더 한층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자들에게 기회의 시장인 K-OTC시장이 출범했다. 평소 장외우량기업의 주식소유를 꿈꿨던 바가 현실이 되었고, 호가가 표시되니 가격 흥정도 매매 상대방도 찾을 필요가 없어졌으며, 사기피해 우려도 잠재워졌다. 본인의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큰 성공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동안 말도 많던 경쟁매매·상대매매의 시비를 부지런한 투자자와 게으른 투자자로 이분하는 것은 지나친 편견일까

기자의 눈

기술금융, 은행이 먼저 나서라



김 민 지 금융시장부/kimm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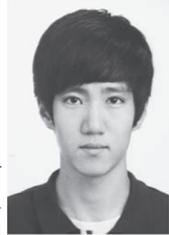
금융당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 주문과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연일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별 기술금융대출 실적을 공개하면서 은행간 경쟁까지 부추기는 양상이다. 기술금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되레 부실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술금융 추진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금융기관이 여전히 담보나 보증 위주의 보수적인 자금지원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질적인 담보 위주 대출은 한국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금융권 대출 중 담...

보대출 비중은 39%대에서 44%대로 확대됐다.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50%대에서 42%대로 축소됐다.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83%에서 73%대로 줄었다. 신용과 기술에 근거한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고 그런 점에서 금융당국의 기술금융 독려는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기술금융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고 잠재부실 가능성도 크다. 금융회사 직원의 면책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성과를 독려하는 것만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은행별 실적을 공개해 기술금융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논리는 그 자체가 관치(官治)적 발상일 수 있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지금보다 훨씬 수준 높은 대출심사, 위험분석, 신용평가, 사후관리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실적 경쟁을 부추기기보다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장애인 에티켓, 얼마나 아시나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가운데 장애를 지닌 인구는 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구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이라는 의미다. 선진화 의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 5%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경직된 편견 탓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그동안 다양한 장애인 인권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과 비교해 장애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의지도 개선됐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가 장애인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인해 때때로 부정적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예컨대 지체장애인이 길을 걷다 실수로 넘어졌을 때를 가정해 보자. 우리는 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한다. '괜스레 나서서 도움을 주려다 오히려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도와주지 않았다가 배려가 없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 등을 걱정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일종의 긍정적 고민이다. 반면 이런 긍정적 사고를 지냈음에도 올바른 배려를 알지 못해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단순한 시민의식 차이를 넘어선다.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노력'인 셈이다. 장애인이 넘어졌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정답은 그들에게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것이다. 장애인을 두고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나의 편견이다.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혼자 일어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다.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정답이다. 장애가 없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역시 마찬가지다.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필요하다면 그때 상대를 돕는 게 순서다. 무조건적 도움은 오히려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기본 에티켓인 셈이다. 우리는 이제껏 그들에 대한 에티켓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저 무조건적 도움이 배려이자 미덕이라 여겼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세상이 변하고 장애인의 의식도 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에티켓을 먼저 배우는 게 좋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러한 배려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한국 장애인재활협회, 고려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이러한 배려를 담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애니메이션과 칼럼, 홍보책자 등 매체도 다양하다. 나아가 오프라인상에서 실제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배려를 익히도 좋다. 그들과 직접 소통하고 배우는 방법이다. 그들의 시선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티켓을 가장 확실히 배울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장애인과의 다양한 소통의 길이 열린다. 이러한 소통은 마음 속 배려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

젊은발언대



박 성 찬 서울대 재료공학부 지암선진화아카데미 14기

전체 인구의 100명 중 5명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오히려 불편하게 할 수도

소통·배려의 기술 익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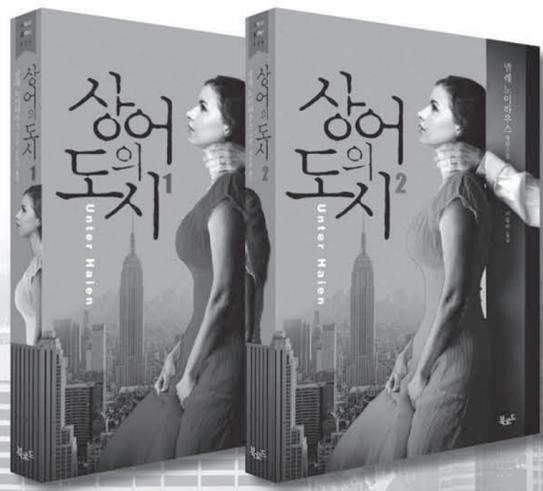
이투데이

社 是 正 道 言 論 經 濟 報 國 未 來 指 向

www.etoday.co.kr

Table with 3 columns: Department, Phone Number, and Address.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Non-Sales, Sales, and Advertising.

상어 무리 속에 내던져지는 순간 모든 것이 위협에 빠진다 일, 사랑, 친구 심지어 목숨까지도...



상어의 도시 1,2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의 작가 벨레 노이하우스의 첫 번째 장편소설

벨레 노이하우스 지음 | 서유리 옮김 | 각권 값 11,500원 | 북로드



2014년 여름,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벨레 노이하우스의 타우누스 시리즈

벨레 노이하우스 지음 | 김진아 옮김 | 각권 값 13,800원

정몽규 회장 “내년 FIFA 집행위원 도전”

AFC U-16 결승전 참관... 출마 의사 밝혀 “국제 축구계 진출 한국 영향력 강화할 것”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국제 축구계 진출에 나선다.

지난 20일 정몽규 회장은 태국 방콕의 라자만갈라 스타디움에서 끝난 한국과 북한의 2014아시아축구연맹(AFC) 16세 이하(U-16) 챔피언십 결승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FIFA 집행위원 선거는 내년 4월 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AFC 총회에서 치러진다.

정 회장은 “한국이 아시아 축구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집행위원이

되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FIFA 집행위원을 지낸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 이후로 한국은 FIFA 집행위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FIFA 집행위원회는 월드컵 본선을 포함한 각종 국제 축구대회의 개최, 일정, 방식 등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로 축구 경기의 규칙을 개정하는 국제축구공의회(IFAB)에 과견할 FIFA 대표를 선임하거나 FIFA 사무총장을 해임하기도 한다.

FIFA 집행위는 월드컵 본선이 열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다음해 회장, 부회장 8명, 집행위원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임기 4년의 집행위원직은 각 대륙연맹에 차별적으로 분배된다.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배정되는 집행위원은 4명이다.

AFC 회장은 FIFA의 당연직 부회장이므로 집행위원을 겸하고 나머지 3명은 47개 AFC 회원국 대표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정 회장은 내년 5월 다시 뽑아야 하는 AFC 내 3명의 FIFA 집행위원 중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AFC 내 3명의 FIFA 집행위원은 장지룡(중국), 와라위 마쿠디(태국), 셰이크 살만 빈 이브라힘 알 칼리파(바레인)다.

한편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현재 아시아에서 출마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는 없다.

축구계에서는 정 회장이 일본, 서아시아 후보와 다를 것이라는 관측 정도만 나오는 등 경쟁구도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구성원 기자 carlove@



허미정, LPGA 요코하마 클래식 ‘갑격의 우승’

허미정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옐라배마주 프레트빌의 로버트 트렌트 존스 골프클럽에서 막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요코하마 타이어 클래식에서 우승한 후 트로피에 입맞추고 있다. AP/연합뉴스

현정은 회장 ‘亞·太 여성기업인’ 14위

〈현대그룹〉

美 경제전문지 포춘 선정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사진)이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태평양 여성기업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은 지난 19일 현 회장이 ‘2014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성 기업인’ 25명 중 14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국내 여성 기업인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다. 포춘은 매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부터 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나뉘어 심사를 진행했다.



현 회장은 국내를 대표하는 여성 경영자로서 남북경제협업을 통해 남북 화해와 협력,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해왔으며 최근 적극적인 지구 노력으로 그룹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여성 기업인 중에는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15위에 올랐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김기문 중기중앙회장,美서 반기문 총장 면담

“통일경제시대 대비 中企 지원” 뜻 모아

반기문 중기중앙회장 참석 요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미국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만나 국내 중소기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참여,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카타노호텔에서 반 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중기중앙회 노상철 부회장, 이한욱 경남지역 회장, 구자옥 대전충남지역회장, 옴니시스텍 배혜린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단과 김원수 유엔대사 등이 동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반 총장에게 통일 경제시대를 대비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올 하반기 방한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도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반



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총장은 최근 원화강세와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 참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내 중소기업계는 2011년 빈곤문제 해

결 과제에 동참해 달라는 유엔의 제안에 김 회장이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하며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이후 김 회장은 중소기업사관나눔재단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모금한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물품과 성금을 아프리카 북동부지역에 전달하고, 분당서울대병원과 함께 케냐지역을 방문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이에 반 총장은 지난해 3월 뉴욕에서 미국을 방문한 중소기업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같은 해 4월엔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성명을, 8월에는 개성공단 방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박 대통령 경제사절단 방문 기간 중 오타와에서 코트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캐나다 대형유통망 진출 로드쇼’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정우 기자 thec98@

안중근 의사 중에 알린
조선족 학자 서명훈 응

“공적 재평가 감개무량”

중국 하이퉁장 하얼빈시 하얼빈역 플랫폼 한쪽에 표시되어 있는 동그런 원 두 개는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장소를 알리는 표시이다. 하얼빈시에서 이 표시를 만들 때 고증을 통해 정확한 지적 위치를 알려주고 안 의사를 중국에 알리는 데 앞장서온 사람이 바로 조선족 재야학자 서명훈(84)이다.

21일(현지시간) 하얼빈역 안중근 기념관에서 그는 “중국 정부는 올 초 개관한 기념관을 대대적으로 크게 신축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꾸준히 중국 사회에 안 의사의 공적을 알려왔던 노력이 이제야 제대로 평가받는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지린성 연지현 출신인 서 응은 1954년 베이징 중앙민족대학을 졸업한 후 하이퉁장성 공무원으로 40여년간 일하고 1993년에 정년퇴직했다. 하얼빈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으로 있던 1990년에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보는 하얼빈 문서자료에 ‘안중근 의사이토 히로부미 격살’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중사회에 안 의사의 존재를 전했다. 1992년 중국 청소년 권장도서에서 안중근을 의사를 소개한 그는 ‘안중근 의사 하얼빈에서의 열하루’, ‘중국인 마음속의 안중근’, ‘중국에서의 안중근 연구논문 집성’, ‘안중근 의사 지식 문답’등을 중국어로 저술하기도 했다.

오는 10월 26일 안 의사의 10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서 응은 안 의사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대규모 국제학술 세미나를 하얼빈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인천 AG 성공을 기원합니다”

포스코건설 다문화 어린이 서포터즈
개막식서 참가국 전통의상 퍼레이드

포스코건설은 지난 7월 결성한 다문화 어린이 서포터즈들이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 전 참가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퍼레이드를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다문화 어린이 서포터즈들은 지난 19일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북쪽 광장에서 개막식을 축하하고 대회 개최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참가국 전통의상을 입고 퍼레이드를 펼쳤다. 또한 국내외의 관광객을 위해 사물놀이와 즐거운 무대공연을 가졌다.

이날 다문화 어린이 서포터즈의 전통복 퍼레이드에는 길놀이패의 화려한 전통 공연을 비롯해 인천 아시안게임 공식 마스코트인 바라메, 추드로, 비추온이 퍼레이드에 함께하기도 했다.

서포터즈로 퍼레이드에 참여한 김인선(초5)양은 “처음 베트남 의사 아오자이를



포스코건설이 올해 7월 결성한 다문화 어린이 서포터즈들이 최근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 전 참가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퍼레이드를 펼쳤다. 사진제공 포스코건설

입었을 때 많이 어색했지만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시니 베트남과 가까워진 것 같다”며 “이번 활동이 인천 아시안게임을 세계

에 알리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한국계 멜리사 리, 뉴질랜드 총선 3선 성공

뉴질랜드 총선에서 집권 국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한인 멜리사 리(48·한국명 이지연·사진)가 20일(현지시간) 세 번째 당선에 성공했다. 언론인으로 활동하다 지난 2008년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뉴질랜드 정계에 진출한 그는 이번 당선으로 3선 연임의 영광을 얻었다.

리 의원은 “3선의 꿈을 이뤄 기쁘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며 당선



소감을 전했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관계에 대해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양국관계가 두 나라

의 좋은 점을 바탕으로 더욱 긴밀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카터 前 대통령 손자 주지사 되나

조지아주 민주당 후보 제이슨 카터... 現 공화당 주지사와 접전

미국 카터 가문이 할아버지-손자 주지사 당선 영광을 눈앞에 두고 있다.

21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보수의 아성’인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지미 카터(90) 전 대통령의 손자 제이슨 카터(38·사진)가 공화당의 현직 네이션럴 주지사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오는 11월 4일 중간선거를 44일 앞둔 이날 USA투데이가 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이슨 카터 후보는 42.3%의 지지를 얻어 덜 주지사(44.5%)를 맹추격 중이다. 제이슨 후보가 역전 드라마를 펼쳐 덜 주지사를 제치고 덜 주지사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제이슨 카터(1971-75년)에 이어 조부-손자라는 역사를 쓰게 된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인사

- ◆국도교통부 >과장급 신규채용 △장관정책보좌관 이태호 >과장급 전보 △주태기과장 김홍복 △주태경비과장 김영한 △항공산업과장 장우철
- ◆외교부 >과장급 승진-전보 △인사기획관 임응순 △국제법률국장 김인철 △북핵외교기획단장 신재현
-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기획조정관 지방이전추진팀장 이근석
- ◆IBK투자증권 >임원 신규선임 △상품전략본부장(전무) 소성수
- ◆중도일보 △편집국장 백운석 △세종본부장 유영문 △편집부국장 최재현 △취재부장 김대중 △취재2부장 김덕기 △취재3부장 김재수 △취재4부장 한성일 △내포본부이승규 △서울본부장 겸 서울주재 황명수 △서울주재 오주영

부음

- ▲하태형(현대경제연구원 원장)씨 장모상, 유영진·원종·선중·세중·미중씨 모친상 = 21일 오전 7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 055-644-0023
- ▲김영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씨 모친상 = 20일 오전,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3일, 장지 양평 선영, 02-3779-1526
- ▲유주열(前 베이징 총영사)·북한(세계은행 이사)씨 모친상, 강석준(KS세무법인 대표)·박찬수(교사)씨 장모상 = 19일 오후 6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3일 오전, 02-2258-5940
- ▲김동진(경남 통영시장)씨 부인상 = 20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 우승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26·사진)가 최근 해외에서 열린 권위있는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조진주는 지난 5~21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2014 제9회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1982년 바이올리니스트 조세프 김골드(1909-1995)가 창설한 이래 4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이 콩쿠르는 미국에서 열리는

바이올린 콩쿠르 중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특히 16~29세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 대회에는 37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조진주는 예원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커티스 음악원을 거쳐 클리블랜드 음악원에서 수학 중이다.

그는 △2005년 스톨버그 국제 현악 콩쿠르 1위 △2006년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



연합뉴스

르 1위 △201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2011년 윤이상 국제 콩쿠르 2위 등 국내외의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바 있다.

조진주는 이번 우승으로 상금 3만 달러

(약 3100만원)와 함께 순금 메달과 조세프 김골드가 사용했던 1683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엑스-김골드’(ex-Gingold)를 4년간 대여받게 된다. 경력 관리와 뉴욕 카네기홀 데뷔 리사이클 기회도 부여받는다.

한편 조진주 외 한국 뮤지션들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임지영(19) 3위, 김다미(26) 4위, 장유진(24) 5위, 이지윤(22)이 6위를 차지해 한국 연주자들이 이번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조진주를 포함해 이번 콩쿠르 결선 진출자 6명 가운데 5명은 모두 금호아시아문화재단의 금호영재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진 기자 tipippo@

2관왕 고교 명사수·金 씨른 2인자 검객... 시작부터 이변



金12·銀10·銅9... 1위 달려

뚜껑을 열어 보니 달랐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은 대회 초반부터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2년 전 런던올림픽 영웅들이 줄줄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 새로운 스타들이 무명 반란을 일으켰다.

‘남자사격’ 김청용 대회 첫 2관왕에 이라진·전희숙·정진선·구본길 등 펜싱 남녀 개인종목 금메달 싸움이 김재범·정다운 등 유도서도 금잔치 박태환, 자유형 200m서 아쉬운銅

대회 첫 금메달부터 이변이었다. 우수 남자 장권 투로 종목에 출전한 이하성(20·수원시청)은 20일 오전 강화 고인돌체육관에서 열린 이 종목 결승에서 9.71점을 받아 자루이(마카오·9.69점)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이 우수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은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김청용은 21일 열린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 단체전(진종오·이대명·김청용)과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첫 2관왕이자 한국 사격 사상 아시안게임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특히 김청용은 사격 선수 입문 3년째로 치러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에 오르며 진종오를 이을 한국 사격의 차세대 주자로 급부상했다.

3회 연속 아시안게임 3관왕에 도전한 박태환(25)은 수영 남자 자유형 200m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박태환은 21일 오후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200m 결선에서 하기와 고스케(21·일본)와 윤양(23·중국)에 이어 3위(1분45초85)로 들어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유형 200m가 주종목인 박태환은 3회 연속 3관왕의 시발점인 이 종목에서 동메달에 그쳐 3회 연속 3관왕은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펜싱은 2인자들의 반란이 거세다. 이라진(24·인천중구청)은 20일 열린 여자 펜싱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지연(26·익산시청)을 꺾고 정상에 올랐고, 전희숙(30·서울시청)은 21일 열린 여자 플뢰레 개인전 준결승에서 남현희(33·성남시청)를 꺾고 결승에 오른 후 리 준(중국)을 15-6으로 여유 있게 제치고 정상에 오르며 여자 펜싱 2인자의 설움을 극복했다.

정진선(30·화성시청)은 남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박경두(30·해남군청)를 15-9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정진선이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을 모으기까지 꼬박 11년이 걸렸다.

반면 남자 펜싱의 에이스 구본길(25·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아시안게임 2연패에 성공하며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자존심을 지켰다.

유도에서는 하루 사이 3개의 금메달이 쏟아졌다. 가장 확실한 금메달 후보였던 김재범(29·한국마사회)은 유도 남자 81kg급에서 나시프 엘리아스(레바논)에게 지도승을 따내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김재범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금메달에 이은 쾌거를 안았다.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에 이은 아시안게임 2연패도 동시에 달성했다.

여자 유도 63kg급에 출전한 정다운(25·양주시청)은 양준사(중국)를 힘겹게 꺾고 금메달을 따냈고, 김성연(23·광주도시철도공사)은 여자 유도 70kg급에서 아라이 츠즈르(일본)에 우세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한국 선수단은 대회 사흘째인 21일 현재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9개로 중국(금12·은9·동11)을 제치고 종합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오성민 기자 golf5@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첫 2관왕에 오른 김청용, 여자 펜싱 플뢰레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전희숙, 유도 남자 81kg급에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한 김재범(사진 위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이 기쁨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AG ‘꽃보다 그녀’

- ‘체조요정’ 손연재
중 덩실웨만 넘으면 금메달 확실
- ‘탁구열장’ 서효원
AG 데뷔... 독일오픈 2위 상승세
- ‘미녀검객’ 김지연
런던 金 이어 인천서 은메달 수확

네이루 올림픽 전장을 뒤흔쳤다. 특히 손연재는 금메달 경쟁 상대 엘리타베타 나자 렌코바(19·우즈베키스탄)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덩실웨(22·중국)만 넘으면 금메달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펜싱 김지연(26·익산시청)은 2012 런던올림픽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출중한 기량과 미모를 입증받았다. 김지연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유력한 금메달 후보다. 지난해에는 미국 시카고 월드컵 개인전 금메달,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고, 올해는 프랑스 그랑프리 개인전 은메달과 수원 아시안선수권 개인전 2연패를 달성했다.

탁구 ‘열장’ 서효원(27·한국마사회)은 이번이 첫 아시안게임 출전이다. 그러나 서효원은 올해 열린 독일오픈 여자 단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서효원은 “홈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부담은 적다. 정상을 지키려는 중국이 오히려 부담을 안고 있을 거다. 결승전에 올라 중국선수들과 맞붙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대회 전부터 관심이었던 북한 미녀 응원단은 이번 대회에서 볼 수 없다. 그러나 북한 선수단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특히 싱크로나이즈 리얼시를 비롯해 여자축구 수비수 김은향 등은 국내 미디어의 집중 관심을 받으며 경기 외적으로도 취재 열기가 가열되고 있다.

오성민 기자 golf5@

주요 경기 일정

- 22일 야구드림팀 태국과 첫 경기
- 23일 박태환, 400m서 金 재도전

90kg급과 여자 78kg급, 남자 100kg급, 남자 100kg 이상급 경기가 펼쳐진다. 대표팀은 금메달이 유력한 김성민(남자 100kg급), 정경미(여자 78kg급)에게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은 22일 오후 6시 30분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태국과 B조 첫 경기를 갖는다.

그 밖에 여자 하키는 22일 오후 7시 키자흐스탄과 조별예선 첫 경기를 갖고, 남자 하키는 23일 오후 7시 일본과 조별예선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남자 핸드볼은 22일 오후 4시 대만과, 여자 핸드볼은 태국과 각각 예선전을 치른다. 여자 배구는 23일 오후 7시 30분 태국과 조별예선 경기를 갖는다.

오성민 기자 golf5@

신담수 권오을
윤성원 송요셉
차명지 서동주
임영재 이재영
송현영 이재영
노혜란 정옥주

원작 김호연 장편소설
(망원동 브라더스)

2014.09.19 - 11.02
화~금 8시
토요일 4시, 7시
주말, 공휴일 4시
대학로 예술마당 2관

데뷔작 문의 | 인터파크 1544-1555
시어터오컴퍼니 02-742-7602

원작 김호연 각색 이서환 연출 홍철우 제작 김민섭 이홍경
기획 김재민 김도경 김태운 조명디자이너 김중석 무대디자이너 김종덕 조연출 서자원 음향오피 장지은 조병오피 김성윤
의상 이훈경 정지은 사진 장지용 후원 나무열의자출판사 삼양식품 하이트론 노랑통닭 에이플러스에드컴
주최/주관 씨어터오컴퍼니 크리에이티브 제작 제자백가 씨어터오컴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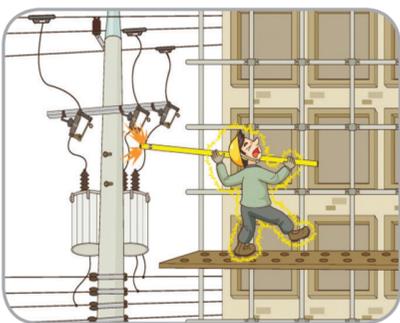


전기안전을 실천하는 생활! 행복한 삶을 위한 약속입니다!

전기안전을 실천하는 것!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입니다.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은 실천,
전기안전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건설현장



작업자는 철근, 파이프의 운반이나 취급중에 부근의 전력선 주변에 근접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크레인이나 펌프카 등 중장비 사용 시에 부근의 전력선에 근접되지 않도록 작업위치를 잘 선정하여야 합니다.

⚠️ 야외활동



전력선 아래나 근처에서 낚시를 하면 안되며 기타 야외활동시 개인 장비가 전력선에 근접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이사현장



전력선 근처에서 고가사다리,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삿짐, 화물운반 및 옥외 광고 설치 시 전력선과 충분한 거리(안전조치)를 확보하고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 끊어진 전선



끊어진 전선은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우천시)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 발견 즉시 한전(국번없이 12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l 스마트 / 2020년 사물인터넷 시장

Cover Story 인재경영 '사람이 미래다'



LG는 시장을 선도하는 고객가치 창출의 원천이 인재라는 신념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육성 및 인재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LG그룹 신입사원들이 'LG 인화원'에서 교육받고 있다.

사진제공 LG그룹

기업 백년대계 '人事가 萬事'

'人事(人事)가 萬事(萬事)다.' 인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통하는 공식이다.

모든 자원이 맞물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기업 생태계의 뿌리가 '인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하지만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우수한 인력을 길러내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달부터 하반기 인재 모시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인재경영을 다시 한 번 견고히 다지기 위한 행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채용은 기업들의 또 다른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올 하반기 대기업들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재를 채용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상위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신규채용 계획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규채용 규모는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58.3%, '작년보다 감소한다' 28.6%, '작년보다 증가한다' 13.1%였다.

삼성그룹은 올 하반기 약 50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총 9000여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뽑았던 삼성은 올 상반기 3500명 정도를 이미 채용했다. 지난 8월 말 하반기 공채를 가장 먼저 시작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올 하반기 3430명을 채용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상

삼성,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현대차, 해외 순환근무 역량 강화 SK '사회적기업' 활동가 키워... R&D 인재 발굴 발로뛰는 LG

반기 5310명을 뽑았다.

SK그룹, LG그룹은 하반기 각각 1000명, 20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이외에 롯데그룹(1000명), GS그룹(1600명), 한화그룹(600명) 등이 하반기 공채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들 그룹은 다음달 인적성 검사를 거쳐 인재경영의 새로운 '알짜'들을 공간에 채우게 된다. 삼성그룹은 다음달 12일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진행하고, 현대차그룹은 다음달 18일과 1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인적성검사(HMAT)를 실시한다. SK그룹은 다음달 19일 인적성검사(SKCT)를, LG그룹도 다음달 초 LG웨이퍼테스트를 실시한다.

한편, 기업들이 채용 못지않게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인재 양성'이다. 인재를 어떻게 키워서 활용하느냐

에 따라 기업의 백년대계가 결정되는 만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삼성그룹은 경영 이념인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인류사회에 공헌한다'에서도 뿌리 깊은 인재경영을 엿볼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의 어록 중 20년 전 강조한 "우수한 사람 한명이 천명, 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은 삼성그룹이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힘을 쏟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삼성그룹은 신입사원 입문교육부터 일련의 양성과정을 통해 직급이나 업무 특성에 맞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 전문가 양성은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인재 육성제도다. 이를 통해 삼성그룹은 지난 20여년간 5000여명의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현대차그룹은 연구개발(R&D),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해외법인 인력 순환 근무 프로그램은 글로벌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SK그룹은 최근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인재에서 찾는 등 '인재보국'의 경영철학을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다. SK그룹이 사회적기업 인재 양성에 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사회적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이 분야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LG그룹은 구분부 회장이 인재 확보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구 회장은 2012년부터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다. 구 회장은 매년 'LG 테크노 콘퍼런스'에 참석, 국내외 이공계 석·박사급 연구개발(R&D) 인재들을 대상으로 그룹 비전과 경영 철학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효진 기자 js62@

현대차그룹

이공계엔 경영, 인문계엔 SW '교차교육'



삼성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에 참가한 신입사원들. 사진제공=삼성그룹

“우수한 인재를 키우고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하는 일과 함께 사회로부터 믿음을 얻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삼성 이견희 회장, 2012년 신년사)

삼성그룹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인력양성에 임하고 있다. 그 배경엔 '창의·열정·소통'이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가 삼성의 미래를 이끌어 낸다는 이견희 회장의 신념이 녹아 있다.

특히 삼성은 통섭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공계 출신 직원엔 경영 수업을, 인문계 출신 직원엔 소프트웨어 수업에 각각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먼저 삼성은 '삼성MBA' 교육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이공계 인력도 경영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5년에 처음 도입했다. 삼성MBA는 '소시오(Socio)-MBA'와 '테크노(Techno)-MBA'로 나뉘어 실시하고 있다.

소시오-MBA는 미래 경영환경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전략 스텝 및 경영지원부문 전문 인력 육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국제 경영 감각과 위기관리 능력 등의 전문 지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테크노-MBA는 경영 감각과 기술 감각, 그리고 정보와 컴퓨터 감각을 함께 갖춘 제조업 중심의 관리자 육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반대로 인문계 전공자를 위한 IT분야 교육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공채부

터 도입한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400명을 선발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그룹 채용 공고와 함께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SDS는 오는 26일까지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모집 대상 전공은 상경, 어문, 인문, 사회, 법정, 예체능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삼성그룹

자율적 직무순환제로 '멀티맨' 양성



현대차 잡페어에 참석한 미래 인재들이 채용 담당자로부터 입사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현대기아차는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세계 초일류 자동차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재육성 전략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스펙의 틀을 벗어나 신개념 채용 방식을 선보이며 차별화된 역량과 가능성을 가진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인재상은 열린 마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창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사람이다.

현대차그룹은 우수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자율적 직무순환 제도 인재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이는 직원이 자신의 경력개발 목표와 계획에 따라 타 부서로 이동을 신청할 경우, 조직 운영 계획과 직원의 개인 니즈(요구)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년 2000~3000여명의 직원들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고 매년 부서를 이동하는 직원 수도 증가하고 있다. 부서 이동이 자유롭게 되

면 부문 간 소통이 활성화되어 업무 효율이 향상된다. 이러한 자율적 직무순환제도는 인직원 역량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우수인재 순환 근무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순환 근무를 통해 해외법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글로벌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다. 2013년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했다.

현대차그룹 측은 "이 프로그램은 본사와 해외법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해외 법인의 우수 인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에 기자 isa@

LG그룹

대학생·임직원 아이디어 적극 사업화



LG 아이디어 캠프에서 아이디어 컨설턴트들이 논의를 통해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LG그룹

"LG는 여러분과 같은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싶습니다."(구분무 LG 회장, 올 초 LG 테크노 콘퍼런스에서)

LG그룹은 인재의 성장 가능성을 중시한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처럼 인재의 재능을 일찌감치 발견하고,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LG의 채용연계 인턴십 제도다. LG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이미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지 오래다.

지난 199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해외탐방 프로그램인 'LG글로벌챌린저'는 대학(원)생들의 해외 탐방보고서 심사 후 본상 수상팀에 대해 졸업예정자들에게는 입사 자격을, 재학생들에게는 인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룹뿐만 아니라 LG화학, LG생활건강, LG CNS, LG유플러스, LG디스플레이 등 계열사들도 이 같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그룹 인사직원을 대상으로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직원들이 상품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사업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사내 포

털 'LG-LIFE'를 오픈했다. LG-LIFE에서는 우선 직원들이 시장선도 상품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프로토타입링하는 도전 프로그램 '퓨처 챌린저'를 운영하고 있다.

LG는 이 같은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퓨처 챌린저 선정 프로젝트를 포함한 사업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인재를 선발하는 '잡 포스트'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이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 선발된 인재들은 일정 기간 현업에서 나와 프로젝트에 전념할 수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SK그룹

오디션·면접으로 채용 '제2 잠스' 발굴



올해 상반기 진행된 SK 바이킹 챌린지 현장의 모습. 사진제공=SK그룹

SK그룹은 '사람을 키우듯 나무를 키우고, 나무를 키우듯 사람을 키운다'는 인재양성 정신과 '인재를 키워 나라에 보답한다'는 인재보국(人材報國)의 노력을 40년 넘게 실천해오고 있다.

SK의 인재경영은 1973년 시작한 장학퀴즈에서 출발해 1974년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외국 우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고등교육재단 설립으로 이어졌다.

최근 SK는 스티브 잡스형 인재 확보를 위해 신입사원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학교, 성별, 나이, 학점, 어학점수 등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장벽들을 없앴다.

이에 따라 SK는 올해 일부 계열사가 아닌 그룹 전체에서 지방대생을 30% 이상 선발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젊은이들의 기와 열정, 도전정신만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바이킹 챌린지'를 실시한다. 현재 신입사원 공개채용과는 다른 인턴십 채용으로 서류전형이 없으며, 오디션 과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된 후 인턴십을 거쳐 정직원으로 입사하는 채용방식이다.

실제 입사지원서에 학력·학점, 어학점수 기입란이 아예 없으며 지원자들이 별도 합격에서의 미션 수행능력

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과격적인 방식이다.

또 'SK W-네트워크'는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우수 여성인력 육성을 위해 처음으로 그룹 차원에서 설립된 임원급 여성협의체다. SK는 그룹의 여성임원과 주요 관계사의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남성 임원이 동등한 비율로 참석해 분기별로 여성 관련 정책 지원 사항과 역량개발, 양성평등 문화 구축을 위해 논의하고, 논의 결과는 신속하게 전략 과제로 선정해 SK 그룹 인력담당 임원회의에 상정한다. 이는 다시 각 관계사에서 실행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파되어 운영되고 있다. 김혜진 기자 sinemargo@

쉽고,편리한 투자의 시작



교보증권 스몰캡 팀이

콧! 찍어드립니다



문자받고, 따라하는
참! 쉬운 투자서비스

대한민국 강소기업
창조1호
서비스

* 창조1호 서비스는 추천종목을 문자로 제공하는 선택수수료 서비스입니다.

창조1호 서비스만의 특별한 혜택

하	더 이상 종목 찾을 걱정 Zero!	리서치센터의 포트폴리오 및 각종 리포트만 보면, 관심 종목이 한눈에!
중	매매타이밍 고민 NO!	스몰캡팀의 추천(제외)종목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발송, 그대로 따라하면 끝!
셋	실시간 종목 상담서비스	관심 종목에 정보가 부족하신 고객님의 위한 맞춤 1:1 종목상담 서비스!

* 본 내용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서비스 체계에 대한 안내입니다. * 당사는 본 서비스 및 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며,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창조1호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3개월 기준으로 예탁자산 300만원 이상 0.5%, 1천만원 이상 0.45%, 5천만원 이상 0.39%를 선회수수료로 적용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4-03987호(2014.06.20~2015.06.19)

한화그룹

인·적성검사 폐지... 국내외 인턴십 늘려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인재는 한화그룹의 발전과 성공의 기반이며 향후 지속성장의 원동력이다. 한화그룹은 국내외 우수 인재채용과 양성, 그리고 공정한 평가와 보상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핵심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한화 정신인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도전·혁신·정도의 핵심가치'를 내재한 글로벌 인재들이 한화그룹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고 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한화그룹의 인재양성의 산실 한화인재경영원 전경. 사진제공 한화그룹

한화그룹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고를 추구하는 도전적인 인재 △회사·고객·동료와의 연계를 소중히 여기며 더욱 큰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인재 △자극심을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버리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인재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미국에서의 현지 기업설명회는 국내 최초로 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주관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국내외 대면 면접 이외에도 화상과 전화 면접을 통한 신중적인 인성과 역량 평가, 그리고 국내외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을 통해 우수 인재들 조기에 확보해 육성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이러한 조건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국내외 채용, 인턴십 제도를 실시하고, 전문분야도 수시 채용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03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북미·유럽·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별 'Campus Visit'와 현지 면접을 통해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한화인을 발굴하고 있다.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진은 채용 홍보와 면접에

한화그룹은 2013년 공채부터 10대 그룹과 대형 공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인·적성검사를 폐지하는가 하면 고졸 직원들의 역량 배양을 위한 한화기업 대학도 설립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CJ그룹

'임원승진까지 최단 10년' 젊은인재 발굴



CJ그룹은 문화콘텐츠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 발굴 및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CJ의 '인재제일(人材第一)' 경영철학은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 중구의 CJ(주) 본사 앞에서 CJ그룹의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CJ그룹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전환 프로그램 도입을 기념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CJ그룹

CJ그룹은 국내 20대 그룹 중 고용계수 1위를 차지, 매출 대비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가장 크다. 고용계수는 1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때 그룹 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근로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식품사업에 주력했던 기존 사업군을 식품서비스, 신유통,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등으로 확장하는 창조적 사업다각화 성공의 결과다.

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대졸 신입사원에서 임원 승진까지 걸리는 시간을 20년에서 최단 10년으로 단축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승진제도를 발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역량있는 젊은 인재들 조기에 발굴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도 연공서열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성과와 능력 위주의 인사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이선애 기자 isa@

CJ그룹은 다양한 인재 발굴을 위해 직접 만나 소통하는 열린 채용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직접 멘토로 나서서 행사 CEO와 함께하는 컷저 런치'를 처음 시행했고, 지난 3월에 도캠핑과 멘토링을 접목한 '아웃도어 멘토링'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CJ그룹은 혁신적인 인사정책도 펼치고 있다. 대기업 최초로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제(1999년)를 실시했고 '남' 호칭제(2000년)를 도입하는 등 급변하는 글

포스코

대학 2학년생 입사 전 기초역량 키워



포스코 인재경영은 채용에서부터 시작된다. 도전·창의·글로벌·상생 등 포스코 가치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신입사원 공채는 채용 1년 전부터 관련 정보가 안내된다. 입사 희망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한 배려다. 사회공헌활동 우수자, 저소득층 가정, 한국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한 인재를 우대하고 있으며, 깊이있는 사고력과 소통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역사예세이도 도입했다.



신입사원들이 철의 근원과 포스코 비전인 'POSCO 더 그레이트'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포스코

포스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포스코 스텝 라시' 제도는 입사 전 미리 기초역량을 키우는 예비 입사 프로그램이다. 대학교 2학년생 중 우수 학생을 선발해 문과생에게는 공학과목을, 이과는 본인 전공 외 타 공학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지원한다. 올바른 역사관을 지닌 인재들 키우기 위한 역사과목 수강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에는 지역전문가, 해외주재원, 해외 연구과정, 국내·글로벌 MBA 과정, 포스텍 유학, 어학전력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지역전문가 제도가 인기가 높다. 지역전문가는 해외사업 확대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준비된 인재를 매년 선발해 1년 동안 중국·일본·인도·인도네시아·태국·멕시코·러시아 등에 파견하는 제도다. 현지 교육기관에서 유학한 후, 해당지역 주재원 파견으로 연결해 준다. 이다람 기자 zing@

롯데그룹

성별·문화·신체·세대 존중... 차별 철폐 명문화



롯데그룹의 인재육성 핵심은 다양한 사고를 가진 인재들이 차별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에 있다.



롯데그룹 신입사원들이 입문교육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롯데는 미래 시장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그룹

롯데는 지난해 4월 '롯데그룹 다양성 헌장'을 제정했다. 성별·문화·신체·세대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국내 주요 기업 중 처음으로 구성원의 다양성 존중과 차별 철폐를 명문화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인구 구성비 변화, 다문화 가정의 확산 등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기업경영 측면에서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조직문화가 개개인의 창의적 의견 개진과 소통을 가능하게 해 조직 혁신과 신사업 발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학력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여성과 장애인 채용도 적극적이다. 해마다 신입사원의 35% 이상을 여성으로 선발하고 있다. 또 부드럽지만 강인한 여성 리더십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해 여군 전역장교 특별 채용도 실시하고 있다. 2011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장애인 공채도 실시하고 있다. 롯데는 2011년부터 신입사원 선발 시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

현재 채용인 5만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글로벌 행보에 발 맞춰 글로벌 인재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전문가(Country Expert)'제도는 롯데가 자랑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다. 법인장 및 사무소장으로 파견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국·베트남·러시아·인도네시아 등 롯데가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윤철규 기자 yoonck@

다양성 존중 철학은 채용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롯데는 학력이나 스펙보다는 열정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롯데는 2011년부터 신입사원 선발 시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

롯데는 현재 해외 20여개국에 주재원과



세상에서 가장 욕심부리지 않는 추출

커피의 맛은 좋은 원두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원두도

추출에 욕심을 부리면 품질이 낮아지죠. 카누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엄선된 콜롬비아 원두를 카누만의 기술로

욕심부리지 않고 추출합니다. 여기에 미세원두의

품이가 더해지면 신선한 아메리카노

카누가 탄생합니다



GS그룹

업계 첫 한국사 시험... 올바른 역사관 검증



GS칼텍스가 임직원에게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보람의 터전이 되기 위한 인재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GS그룹

GS그룹은 인재 육성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업 활동이라 여기고 인재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허창수 GS 회장은 평소 "회사를 이끌고 나아갈 인재들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며 "리더들의 책임 중 가장 막중한 것은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GS그룹은 각 계열사별로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GS칼텍스는 임직원들에게 계층별 교육 및 공통 역량 교육, 조직개발 관련 교육 등을 통해 1인당 연간 85시간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전문 코치제를 통한 코칭 프로그램 및 상사-선배 멘토링 제도로 개인에 특화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우수인재 대상으로 국내외 대학의 MBA 과정 지원, 쉐브론 등의 세계적 기업에 인턴 파견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GS리테일은 구성원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팀과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

는 리더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직책자 중심의 체계적 리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GS EPS는 구성원에게 직무 전문성 강화 교육, 직급별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또 자기계발을 위한 어학교육, 각종 도서 구입, 체력단련비도 지원한다. 엔지니어에게는 기술역량 향상을 위해 독일 발전설비 교육 등 다양한 해외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GS는 각 계열사별로 하반기 채용을 진행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총 1800명(대졸 400명, 고졸 150명, 시간제 100명 등 포함)을 채용한다.

특히 GS칼텍스는 올바른 역사관과 제대로 된 역사관을 지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적성 검사 시 한국사 시험을 업계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이며, 올해는 GS 모든 계열사에서 올바른 역사관 검증의 일환으로 한국사 시험을 도입해 진행할 계획이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효성그룹

면접시 영어보다 논리·소통 능력 중시



효성의 48기 대졸신입사원들이 지난 7월 세빛섬에서 개최된 하계수련대회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효성그룹

효성그룹은 핵심 가치인 '최고·혁신·책임·신뢰'의 자질을 갖춘 인재를 선발·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리더로 성장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열린 채용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6개월간의 OJT 교육, 직급별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11월까지 대졸 신입사원 250여명을 선발하는 효성그룹은 입사 지원 시 영어점수, 학점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효성그룹은 서류전형에 이은 인-적성 검사와 직무역량 및 핵심가치 보유 여부를 평가하는 면접전형을 통해 논리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갈등해결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한다.

효성그룹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체계적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한 효성인으로 거듭난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각 사업부별로 사업분야와 조직에 대한 심화교육을 하는 PG 입문교육, 배치된 실무 부서에서 선배 지도사원과 1대 1로 짝을 이뤄 진행되는 '신입사원 멘토링', 의사소통 역량과 논리적 사고기법을 배양하는 필수 직무교육, 영어 집중교육 등이 있다.

한편 효성그룹은 지난해 4월 글로벌 핵심 인재들 기

우는 '백년대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재개발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신규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등 최상의 인재 육성 시스템을 갖춘 '효성인력개발원'을 신설했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환경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인재 육성'이 핵심이라는 회사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효성인력개발원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직급별 맞춤형 승격자 교육과 임원 및 팀장의 리더십 강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조남호 기자 sprdan@

현대그룹

사내강좌 등 통해 직급별 학점이수제



지난해 10월 개원한 현대그룹 종합연수원 '블룸비스타'의 전경. 사진제공 현대그룹

현대그룹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의 성장을 담보할 핵심 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014년 신년사에서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새로운 사업 기회의 포착과 집중은 결국 그 조직 구성원의 역량에 좌우된다"며 "핵심 인재 확보와 육성에 매진해 달라"고 임직원에게 주문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임직원들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현대그룹은 지난해 10월 그룹 종합연수원 '블룸비스타(Bloomvista)'를 개원하는 등 교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다. 블룸비스타는 교육연수와 관광·휴양 시설까지 갖춘 호텔형 연수원으로 최대 4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랜드볼룸'과 180명 규모의 '블룸비스타홀' 등 40여개의 강의실이 마련돼 있다. 현대그룹은 이번 그룹 종합연수원의 개원을 계기로 그룹의 차세대 리더와 글로벌 인재 등 최고의 인력을 양성하는 요람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대그룹은 그룹-계열사 임직원을 대상

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룹 임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실시하는 '비전포럼(Vision Forum)'은 경영 마인드와 자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5년 시작된 임원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다. 차-부차급은 HILD를 매월 2박3일간 일정의 합숙을 통해 과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배양시키고, 과장급 대상으로는 분기별로 HIDP를 실시해 미래 경영전략, 과제 해결력, 기본소양 등의 능력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계열사 공통으로 사내 강좌와 인터넷 강좌를 통해 직급에 맞는 학습을 이수하도록 해 승진에 반영하는 '학점이수제'도 운영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rdan@

LS그룹

경영 관련 특수대학원 학비 전액 지원



심재철 LS엔트론 사장이 지난 16일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채용설명회에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LS그룹

LS그룹은 개인의 성장과 조직 역량 증대를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설립된 LS미래원은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LS그룹의 인재육성 요람이다. LS미래원은 LS그룹 경영철학인 LS파트너십의 공유와 전파, 구성원 역량 개발, 탁월한 리더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중장기 교육 △맞춤식 학습시스템 △국제화 교육 △신입사원 집중 교육 등 4가지로 나뉜다.

중장기 교육은 미래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수대학원의 경우 전액 학비를 지원한다. 또 LS-MBA(비학위 사내과정), 헬싱키 MBA(정식학위 과정)를 비롯해 R&D(연구개발)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테크노 MBA,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마케팅 MBA, 기획능력 향상을 위한 경영전략 아카데미 및 해외연수도 지원한다.

맞춤식 학습 시스템을 통해서도 사업 전략 수행 및 성과 창출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핵심가치, 리더십, 직무, 글로벌 등 역량 중심으로 구성됐고 진단 결과를 반영해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연간 자기개발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직무별 현업 중심 교육

로드맵을 제공한다. 직급별 리더십 향상과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도 진행 중이다. 최근 글로벌 사업 확장에 맞춰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직원들은 진급 시 직급별 필수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리더십 역량 모델, 임원 역량 개발 프로그램, 중장기 외국어 학습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다.

미래 성장의 원동력인 신입사원 교육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LS그룹은 입문교육, 문제해결과정, 비전 설정, 멘토링 등 1년간 집중교육한다. 김지영 기자 guty@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2600호 (2014.04.25~2015.04.24)

1 K-CSBI
Korea Customer Surprise Brand Index
고객감동브랜드지수 1위

고객감동브랜드지수 '무엇인가?'
고객이 느끼는 브랜드 이미지의
신뢰도, 선호도, 핵심성(5가지 항목)
시정요율(경영활동, 경영철학)을
자유화 시켜 1위를 선정하게 된다.

'주파수'로 통했다!

SK증권 모바일 앱 '주파수'
2년 연속 한국브랜드경영협회
고객감동브랜드지수 1위 수상 (2013, 2014)

SK증권 대표 모바일 서비스 '주파수'의?
스마트한 주파수꾼
'주파수'는 SK증권의 모바일 앱 서비스입니다

1위에 만족하지 않는 SK증권이 되겠습니다

2011 올해의 금융앱 어워드 대상 1위 (속명예대 - 전자신문)	2012 스마트 금융앱 어워드 대상 1위 (속명예대 - 전자신문)	2013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MTS 부문 1위 (한국브랜드경영협회)	2013 고객감동브랜드지수 (K-CSBI) MTS 부문 1위 (한국브랜드경영협회)	2014 고객감동브랜드지수 (K-CSBI) MTS 부문 1위 (한국브랜드경영협회)
---	---	---	--	--

• 당사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존법에 따라 예금보존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마트폰 매매수수료 [주식] 0.1%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고객센터 1599-8245

행복파트너 SK 증권

“상상이 현실로” 대중화 문 연 ‘사물인터넷’

SK텔레콤

스마트 기기용 ‘앱세서리’로 수출시장 노크



SK텔레콤은 지난 6월 12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 2014'에서 중국 JSD와 스마트로봇 '알버트' 3만대에 대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SK텔레콤이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내세워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앱과 연동해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주변기기인 ‘앱세서리’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우선 지난 6월 12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 2014’에서 중국 내 가정용 로봇 분야 1위 유통사인 JSD와 스마트로봇 ‘알버트’ 3만대에 대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JSD는 현재 중국 전역에 45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00여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알버트 판매 확대를 위해 100여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체험센터 등도 운영할 방침이다.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프로세서인 ‘스마트빔’도 해외에서 인기가 높다. 2012년 9월 출시된 스마트빔은 지금까지 누적 판매 8만여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 일본 등 7개국에 8000여대의 수출 실적을 올린 데 이어 올해 초 브라질 최대 모바일 기기 유통업체와 5000대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중국 현지 IT 유통업체인 완창그룹과 스마트빔 1만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알버트 등 스마트 로봇과 스마트빔은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파리 유네스코 본부의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은 지난 1월 ‘2014 모바일러닝워크에 참가해 스마트빔, 스마트 로봇의 교육영역 활용 기술과 사례를

올 6월 ‘모바일 아시아엑스포’서 스마트로봇 3만대 수출 계약

발표하고, 스마트클래스 솔루션을 함께 전시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지난 2월 모바일 월드 포그레스(MWC)에서 ‘스마트 코인(미아 및 소지품 분실 방지기기), 헬스케어용 스마트 밴드, 뮤직박스 등 다양한 앱세서리 상품을 출품, 글로벌 사업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앱세서리 상품들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소비자 니즈 변화, 이동통신의 멀티미디어 허브화 등 콘텐츠 소비환경 변화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앱세서리 외에도 무선통신 기술을 장어 양식에 접목해 수산업의 사물인터넷 적용 첫 사례를 성공시켜 해외 시장도 공략할 계획이다. 플랫폼 업체인 비디와 함께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장어 양식장에 마련한 ‘IoT 기반 관리 시스템’은 민물장어에 적합한 생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밀도 순환과산화 기술을 채택했다. 이는 근거리 통신으로 수조 내에서 발생한 장어 배설물, 먹이 잔여물 등 이물질이 포함된 더러워진 물을 장어 환경에 맞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다.

SK텔레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스마트 양식장 관리시스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중국·대만 등 주변 국가로 수출도 추진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삼성전자

쇼가전 제어 목표 ‘스마트홈 3.0 시대’ 박차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에 위치한 ‘삼성이노베이션유지엄’에 설치된 ‘삼성 스마트홈’ 시연 공간에서 관람객들이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최근 500여명의 무선사업부 소프트웨어(SW) 인력을 다른 부서로 재배치했다. 삼성전자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력 이동은 사업 간 컨버전스(융합)가 필요한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홈, 모바일 운영체제(OS) 타이젠 개발부문의 SW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사적 SW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이번 인력 재배치는 앞으로 다가올 IoT 시대에 SW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7년 후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세계 Io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본격적 진을 갖추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만큼 부서 간 협업을 염두에 두고 SW 전문인력을 분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부적 조직 변화는 물론 글로벌 기업과의 관계도 더욱 두텁게 쌓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아델, 브로드컴, 델, 인텔 윈드 리버 등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열린 인터넥트 컨소시엄(OIC)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시장에서 기반을 잡기 위해 독자적 행보는 무리수라는 판단에서다. OIC는 이달 중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더불어 삼성전자는 칩셋 차원의 IoT 기술 확보를 위해 인텔에 이어 구글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스레드그룹에도 참여한다. 스레드그룹은 새로운 인터넷규약(IP)을 기반으로 한 무선 통신망 프로토콜을 통해 상호 호환이 가능한 IoT 구현을 위해 설립됐다.

삼성전자는 IoT 사업의 첫걸음으로 스마트홈 사

스마트홈 생태계 구축 위해 무선사업부 SW인력 재배치 글로벌 기업과 ‘OIC’ 출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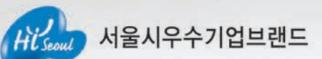
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홈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삼성 스마트홈’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양한 OS를 지원해 산업계 전반의 기업들과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엔 현재 가전기기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1.0 시대’에서 진일보된 ‘2.0 시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2.0 시대에는 밖에서 집안의 가전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계획이다. 나아가 ‘3.0 시대’에는 OIC를 발판 삼아 다양한 회사 제품이 서로 호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IoT 시대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타이젠 OS 개발에 주력하는 것도 소프트웨어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1년 ‘소프트웨어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선언하고 ‘소프트웨어센터’를 신설했다. 이어 1년 뒤에는 DS(부품) 부문 소프트웨어 컨트롤러인 소프트웨어연구소’를 신설했다. 더불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인큐베이팅 등을 통해 SW·서비스의 창조와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삼성 전략&혁신센터’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각각 설립했다.
서지희 기자 jnsseo@

스마트워치·스마트홈 등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사물인터넷(IoT) 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와 함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등 해당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2000억 달러 수준이던 글로벌 IoT 시장 규모는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며 오는 2020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국내 기업들 역시 글로벌 IoT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제품과 기술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국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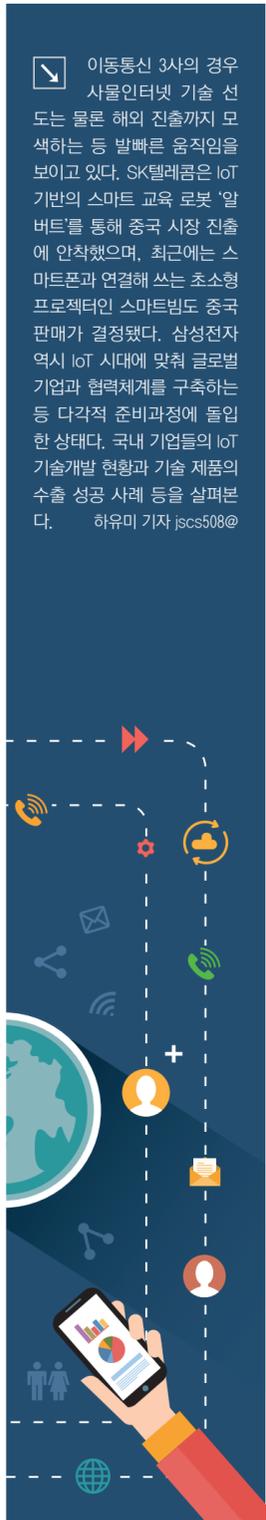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 OZ

재개발 없이 그대로 앱에서 보고서를 본다!

하나의 소스로 멀티플랫폼을 지원하는 스마트 OZ

OZ Report는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태블릿PC에서 별도의 개발 없이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전용 앱을 지원합니다.

‘2020년 1조달러’ 글로벌 영토 선점 나선다



KT

건물에 'ICT 솔루션'... 첨단 호텔로 변신



KT는 지난달 26일 미국 SLS 라스베이거스 호텔(구 사하라 호텔)의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사진제공 KT

KT는 스마트한 건물을 구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의 해외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KT는 지난달 2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SLS 라스베이거스 호텔(구 사하라 호텔)의 정보통신기술 솔루션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KT는 지난해 10월 미국 부동산 개발사, 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150억원 규모의 '호텔 ICT 솔루션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약 10개월간 현지에서 개발 전반에 걸친 ICT 컨설팅 및 구축사업을 수행했다. 1600개의 객실과 카지노, 레스토랑, 쇼핑몰 등을 갖춘 SLS 라스베이거스 호텔은 1952년 설립된 사하라 호텔을 KT의 최첨단 ICT 솔루션을 도입해 새롭게 단장한 최고급 호텔이다.

KT가 이 호텔에 구축한 시설은 스몰링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시설물 관리시스템(FMS)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공간 융복합 솔루션(DSC) △콘텐츠 운영관리 시스템(Smart CMS) 등의 '토탈 스마트 스페이스 서비스'다.

KT의 빌딩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후 호텔에서는 열원 설비와 디지털 미디어 시설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열원 설비의 실시간 상태 조회와 설비 성능 효율 관리가 용이해 에너지 낭비 요소를 빠르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

호텔은 KT의 시설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간 2면 상에서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계획과 처리 결과를 관리해 장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됐다. 다양한 호텔 기자재와 비품에 대한 재고현황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또 KT의 공간 융복합 솔루션을 통해 호텔의 상

지난달 美 SLS 라스베이거스 호텔 에너지 효율·시설·콘텐츠 시스템 등 150억 규모 'ICT 솔루션' 구축 성공

진인 대형 전광판과 건물 내·외부 벽면 등을 활용해 다채로운 영상과 호텔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정보 등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투사해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노출되는 콘텐츠와 각 시설의 상태를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손쉽게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콘텐츠 운영 관리시스템도 함께 구축했다. 이와 같이 KT는 단순한 하드웨어 구축의 일회성 사업이 아닌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시스템을 수출함으로써 창조경제의 핵심인 콘텐츠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KT가 설치하는 스마트 공간 융·복합 솔루션은 단순 정보전달 기능의 키오스크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상, 멀티미디어, 그리고 쌍방향 기능을 통해 직접 참여하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강화했다. 세련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공간과 시각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KT G&E 부문 신규식 부문장은 호텔 개관식에 참석해 "KT의 IT 솔루션 역량을 바탕으로 호텔 운영사와 투숙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첨단 호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SLS 라스베이거스 호텔을 시작으로 SBE사가 추진 중인 다른 호텔의 개발사업에도 KT의 IT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LG유플러스

상생협력서 친환경까지... 사업 범위 확대



LG유플러스는 쓰레기 절감을 위해 2010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 '스마트 크린' 사업을 실시, 해외 진출을 노크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사업을 펼쳐면서 그 영향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사물인터넷 상생협력부터 친환경과 접목한 사물인터넷까지 사업의 범위를 넓히면서 해외시장 진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LTE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주축으로 사물인터넷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2011년 8월 개관한 이노베이션 센터는 이후 사물인터넷 분야 이용 건수가 4000여건(누적)에 이르는 등 150여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주도해 왔다. 현재 솔루션아이티, 에스앤브이와 LTE망을 이용해 재고 파악은 물론 오류확인, 상품매출 증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판기 사업화를 진행하면서 해외에 이를 수출하려 하고 있다.

전자태그(RFID)를 기반으로 친환경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쓰레기량 절감을 위해 2010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 '스마트 크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RFID 기반 사물지능통신(M2M)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를 구축해주는 프로젝트다.

LG유플러스는 현재까지 약 40개 지자체에 1만 5000여대의 장비를 공급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포, 화성에서는 최초로 선불 미납 관리시스템 등을 적용했으며 전국 지자체로 스마트 크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기술은 해외 업체들에서도 관심이 많아 외국 직원들의 문의가 잇따르는 등 수출 전망이 밝다.

이 회사는 또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전국 읍·면

150여 중소기업 사물인터넷 자판기 진행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도

단위 마을마다 무선 통신기술을 이용한 마을방송 서비스 '안심마을zone(존)'을 제공하고 있다. 안심마을zone은 마을 이장이 개인 휴대폰으로 읍·면 내 각 가정에 음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무선 통신 기반 서비스다. 마을 이장이 개인휴대폰으로 고유 전화번호가 부여된 M2M모뎀에 전화를 걸면 이를 통신용 모뎀이 탑재된 마을 방송장비를 통해 가정 내에 설치된 무선 스피커로 실시간 송출해준다.

LG유플러스는 이와 함께 차량 주행·주차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물론 내 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HD급 동영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U+LTE 차량영상서비스'도 활용 중이다. U+LTE 차량영상 서비스는 사고 발생 전후 20초 동영상(30MB)을 최대 10GB의 대용량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전송한다. 때문에 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고, 장소와 거리에 제약없이 HD급 동영상을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해외에 기술이전을 앞두고 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차 위치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주차 위치확인 서비스와 주차된 차량에 충격이 생기거나 차량의 배터리 방전 위험 수치가 감지될 시에 실시간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범근 기자 nova@

보안 전문 기업 - 하우리

SECURE YOUR NETWORK WITH HAURI

PC의 데이터는 어떻게 영구삭제 하실 건가요?

유출되면 안되는 귀중한 데이터! 휴지통 비우기, 포맷, Fdisk 등의 단순 삭제만으로는 영구삭제 될 수 없습니다. ViRobot DataEraser 2.0은 미 국방성 표준안에 따른 삭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도록 완벽히 영구삭제해 드립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영구삭제 솔루션

HAURI 바이로봇 데이터레이저 2.0

제품 주요기능

- ▶ 지워진 파일까지 영구삭제 (복원 불가능)
- ▶ 파일 검색기능으로 원하는 파일만 영구삭제
- ▶ 논리 드라이브 단위 및 물리 드라이브 단위별 지능형 영구삭제
- ▶ 디스크 단위의 빈 영역 영구삭제
- ▶ 보안 등급별 삭제 강도 조절 및 편리한 예약 삭제 기능
- ▶ FAT 16/32, NTFS 파일 시스템 지원
- ▶ 빠르고 안전한 영구삭제

☎ 제품구입문의: 02) 3676-1100

특이점

2003년 관련 기술 특허 등록 완료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영구적 삭제 방법 및 그 기폭 매체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ViRobot DataEraser X v1.0

www.hauri.co.kr

'제3자 유증'에 웃고... '보호예수 만료'에 울고

〈유진로봇〉

〈범양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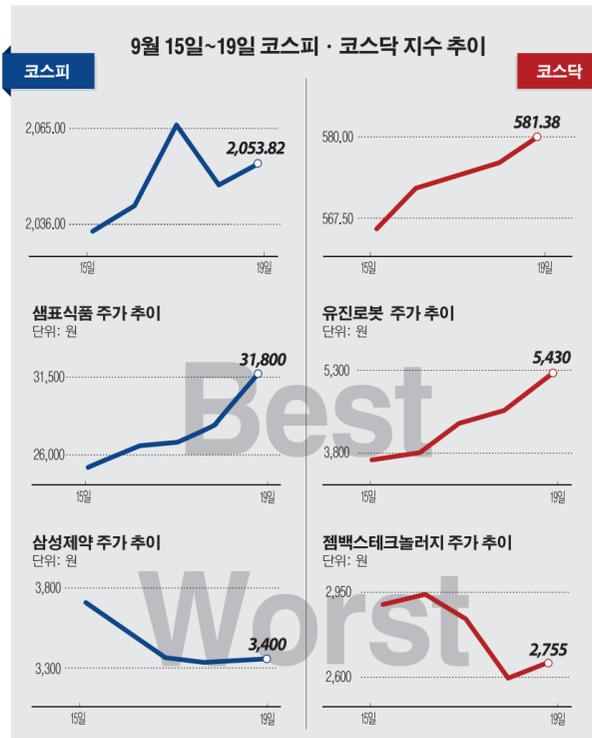
베스트&워스트 9월 15~19일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2000선 중반대에서 혼조세를 보였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 셋째 주(9월 15~19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0.59%(11.96p) 오른 2053.82로 마감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3138억원, 1604억원의 여치를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외국인은 4125억원의 여치를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지난주 외국인의 매수세를 중심으로 연중 최고점인 580선을 돌파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주보다 1.88%(10.73p) 오른 581.38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가 580선을 넘은 것은 1년4개월 만이다. 341억원의 여치를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3조4350억원, 1526억원의 여치를 순매도했다. 지난 19일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외국주 포함)은 142조299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샘표식품, 신제품 출시에 5거래일 연속 상승 = 22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샘표식품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2만 5100원에 거래를 시작해 지난 19일 26.69% 오른 3만18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샘표식품은 신제품 출시 소식에 힘입어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19일에는 장중 3만2150원까지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샘표식품은 지난 15일 요리에센스 '연두'의 700g 대용량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연두는 지난 2012년 5월 리뉴얼 출시한 이후 올해 2월까지 400만병 이상이 판매됐으며 500만병 돌파를 앞두고 있다. 샘표는 연두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주목받으며 소비자층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식단, 학교급식업체 등 B2B

단 소식에 약세 =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은 삼성제약이다. 삼성제약은 15일 4230원에서 시작한 19일 3400원에 마감하며 19.62% 하락했다. 지난 16일 한 언론매체는 삼성제약의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이 제품 섭취 후 심한 피부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제약 측은 민원이 쏟아져 제품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IB월드와이드는 3030원에서 2500원으로 17.49% 떨어지며 하락률 2위를 기록했다. IB월드와이드는 2014 인건비 상승과 관련한 공식 기념품 등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아시안게임 수혜주로 분류돼왔다. 하지만 아시안 게임이 월드컵, 올림픽



'삼성제약' 다이어트 부작용 민원 폭탄에 19% 급락 '샘표식품' 만능 요리에센스 대용량 출시 26% 급등 중기업 화장품 M&A 기대 '한국화장품제조' 강세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동원시스템즈는 특별한 이슈 없이 기관의 러브콜에 힘입어 25.14% 급등하며 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 상승률 3위는 한국화장품제조가 차지했다. 한국화장품제조는 15일 9950원에서 19일 1만2450원으로 25.13% 상승했다. 한국화장품제조는 중국기업들이 국내 중소형 화장품업체 인수를 위한 접촉을 활발하게 추진중이라는 소식에 화장품 관련주로 묶여 강세를 보였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톱리치, 차에라, 상하이자화 등 최근 2-3년간 급속도로 성장한 중국 로컬 화장품 업체들이 국내 중소형 화장품 업체 인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신공영은 15일 1만500원에서 시작한 한 주간 22.39% 상승한 1만2300원에 마감했다. 내달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을 앞두고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제약, 다이어트 제품 생산 중

보다 규모나 흥행 면에서 기대감이 덜한 데다 입장권 판매율이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3위는 12.85%의 하락률을 기록한 범양건설이 차지했다. 범양건설은 유상신주 2003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는다 소식에 약세를 보였다. 범양건설은 지난 17일 제 3차 배정 유상증자로 매매가 제한된 보통주 2003주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20일 만료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한전 부지를 10조원에 매입한다는 소식에 한 주 동안 11.36% 빠졌다.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은 18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 매각 입찰에서 낙찰금액 10조5500억을 제시해 낙찰됐다. 이는 부지 감정가이자 입찰 하한선인 3조 3346억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낙찰가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대차 주가는 약세를 나타냈다. 신일산업은 경영권 분쟁으로 지난주 2090원에서 1855원으로 11.24% 하락했다. 조승에 기자 sysy@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18일 시가총액	증가(원)		주가등락률 (%)
		1월 11일	1월 18일	
샘표식품	141	25,100	31,800	26.69
동원시스템즈	521	17,300	21,650	25.14
한국화장품제조	56	9,950	12,450	25.13
한신공영	122	10,050	12,300	22.39
부루네오	44	1,610	1,970	22.36
일통제약	461	15,050	18,400	22.26
세나전자	70	2,250	2,660	18.22
진양홀딩스	271	4,110	4,655	18.13
엔케이트렌드	181	12,800	15,050	17.58
고려산업	72	2,450	2,880	17.55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18일 시가총액	증가(원)		주가등락률 (%)
		1월 11일	1월 18일	
LG이노베	2,923	133,500	123,500	-7.49
현대모비스	24,628	274,000	253,000	-7.66
기아차	22,254	59,600	54,900	-7.89
유유제약	58	10,950	9,870	-9.86
헛택	34	1,845	1,655	-10.30
신일산업	99	2,090	1,855	-11.24
현대차	42,954	220,000	195,000	-11.36
범양건설	51	21,800	19,000	-12.84
IB월드와이드	49	3,030	2,500	-17.49
삼성제약	76	4,230	3,400	-19.62

※자료: 에프엔가이드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18일 시가총액	증가(원)		주가등락률 (%)
		1월 11일	1월 18일	
유진로봇	107	3,905	5,430	39.05
경원산업	37	2,245	3,045	35.63
유비벨룩스	85	10,500	14,000	33.33
모다정보통신	54	4,420	5,540	25.34
제일테크노스	45	39,750	49,800	25.28
기가레인	177	7,990	9,980	24.91
코리아나	157	3,160	3,925	24.21
켈릭사이언스	69	1,850	2,250	21.62
신데이토즈	695	17,850	21,550	20.73
에이저엔비	153	4,870	5,870	20.53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18일 시가총액	증가(원)		주가등락률 (%)
		1월 11일	1월 18일	
대동스틸	39	4,265	3,890	-8.79
네오팜	80	11,850	10,750	-9.28
디엔에이링크	76	16,550	15,000	-9.37
이수엘지스	114	9,380	8,490	-9.49
케이에스씨비	39	3,065	2,765	-9.79
팬텐터테인먼트	54	6,600	5,830	-11.67
신영	27	1,540	1,360	-11.69
켈백스	599	25,400	22,200	-12.60
코원	21	2,230	1,905	-14.57
켈백스테크놀로지	57	3,275	2,755	-15.88

※자료: 에프엔가이드

◇유진로봇, 독일 기업 투자 유치 소식에 급등 = 22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유진로봇으로 한 주간 39.05% 상승했다. 이 기간 주가는 3905원에서 5430원까지 치솟았다. 유진로봇은 지난 19일 독일 가전업체인 말레의 지주사로부터 자금을 유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장중 543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유진로봇은 이날 75억100만원 규모의 제3차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 상대방은 독일 말레의 지주사인 'Imanto AG'다. 경원산업은 지난 주 35.63% 급등하며 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 경원산업은 18일 피혁제조업체 신우 인수를했다는 소식을 공시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경원산업은 종속회사인 선포 커스가 지난 16일 인수를 인수

모다정보통신도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25.34% 상승한 554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모다정보통신은 전자부품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등과 함께 개발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술을 공격표준화를 주도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다. 15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국내 전자부품연구원(KETI)이 공동 에디터를 맡아 모다정보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KETI에서 개발해온 IoT 플랫폼 기술을 공격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격표준이란 국가 차원의 표준화 기관이 제정하는 표준으로 개발 속도는 느리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개방적이며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국제 표준을 말한다. 일부 선진국의 자국 기술 보호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하다. ◇켈백스테크놀로지, 15.88% 하락 =

'경원산업' 피혁제조업체 신우 인수소식에 상승2위 '켈백스테크놀로지' 별 이유없이 15% 폭... 하락1위 4년째 적자수령 '코원' 더딘 실적개선 속도에 14%↓

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국내 피혁업체 5위 업체인 신우는 2000년대 중반까지 연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우량회사였다. 2007년 11월 국내 업계 최초로 아디다스 공식협력업체로 등재됐고 2011년 코치로부터 고객서비스만족도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원가 상승에 따른 적자 누적 등으로 지난 4월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 10월에는 신사업 진출을 위해 반도체 설비제조업체인 포아텍을 인수했지만 손실이 커지면서 지난 3월 퇴장했다. 유비벨룩스는 지난 15일 1만500원에서 시작한 33.33% 오른 1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비벨룩스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및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묶여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유비벨룩스는 스마트카드, 위치정보, NFC 결제 등의 사업을 맡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한국조폐공사와 국내외 공공 ID카드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주 코스닥시장에서는 켈백스테크놀로지가 15.88% 하락하며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주가는 3275원에서 2755원으로 떨어졌다. 코원은 지난주 14.57% 떨어지며 하락률 2위를 기록했다. 코원은 실적 개선이 더딘 속도를 보이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연결 기준 코원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 167억3000만원, 영업손실 15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1년 98억3000만원, 지난 2012년 146억7000만원, 작년 104억4000만원 등 영업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켈백스는 2만5400원에서 12.60% 하락한 2만2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락률 4위를 기록한 신영은 지난 15일 1540원에서 19일 1360원으로 11.69% 떨어졌고 팬텐터테인먼트는 6600원에서 5830원으로 11.67% 하락했다. 이 밖에 케이에스씨비(-9.79%), 이수엘지스(-9.49%), 디엔에이링크(-9.37%), 네오팜(-9.28%), 대동스틸(-8.79%) 등도 동반 하락했다. 조승에 기자 sysy@

세월호로 드러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말하다

아무도 내릴 수 없는 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릴 수 없는 배

우석훈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12쪽 | 값 12,000원

어떤 사회는 비극을 통해 배우고 어떤 사회는 재난을 통해 더 망가진다.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벌어진다. 그러나 같은 비극 앞에 어떤 사회는 더 성숙해지지만, 엄청난 희생을 겪고도 어떤 사회는 오히려 망가진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경제학자 우석훈이 쓴 《내릴 수 없는 배》는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국 사회를 깊숙이 관통하는 시점으로 그 배경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식 재난 자본주의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왜 생명의 문제가 경제적 차원에 좌우되는가?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공공 시스템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이 크나큰 비극 뒤에서 재난 자본주의는 어떻게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희망을 가져다줄 미래의 주체들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문의: 02)3670-1098

20만 독자 인정! 유리지갑 월급쟁이를 위한 재테크 교과서!

회사일이 바빠 재테크는 뒷전인 당신에게!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우용표 지음 | 갈벗 | 468쪽 | 값 14,000원

특별선물 비즈니스 플래너(초판 한정)

한 달에 한 번 강등을 맞보는 월급쟁이, 당신의 월급에 속목 있으라! 꼬박꼬박 월급은 받는데 왜 모이지는 않을까? 돈을 모으고 싶은 월급쟁이를 위해,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이 더 강한 완성도로 돌아왔다!

당신의 뻘한 월급을 특별하게 만드는 93가지 비책! 수입 뻘한 월급쟁이를, 오히려 이 점이 체계적인 계획만 세운다면 장기적인 재테크에 더 유리하다. 언제나 헛갈리는 펀드·주식·부동산·예적금·보험의 명쾌한 해답을 얻고, 특히 각 분야별로 조심해야 할 내용을 특별히 배워 보자. 이 책을 당신의 재테크 비서로 삼아라. 연봉 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인 직장인이 3년 안에 목돈을 만들기 위해 어떤 재테크 지식을 쌓아야 하는지, 또 투자스타일별, 나비별로 어떤 재테크 전략을 써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줄 것이다.

문의: 02)330-9824

정신과 박사 이나미가 말하는 미래 인간의 모든 것

욕망도 인간도 관계도 사라진 시대가 온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다음 인간

이나미 지음 | 시공사 | 252쪽 | 값 13,000원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 급증, 탈북자 호스트의 출현, 노년자의 실종..." "다음 인간"은 디스토피아에서 살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포르노와 성매매가 더 늘어나며, 자국의 범람 속에 오감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무감동 중후근에 빠진 사람들, 사이코패스 등이 많아진다. 20~30년 후, 혹은 10년 후, 정신과 박사 이나미가 상상하는 미래 인간의 모습이다. 바로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다. 이제 기술이 없는 인간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수많은 테크놀로지는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지만, 인간이 만든 기술은 역으로 우리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 책은 기술이 우리 인간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하여 앞으로 나타날 '다음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야기한다.

문의: 02)2046-2800

제 26차 경제경영 연합광고 캠페인 ● 출판사 참여문의 ☎ 070-4333-0098



영인과학, 인천AG에 도핑테스트 장비 공급

86아시안게임·88올림픽 이어 최첨단 분석장비... 24시간 비상지원체계 구축

코스닥 기업 영인프린터의 자회사 영인과학이 2014 인천아시아대회의 도핑테스트를 지원한다. 영인과학은 한국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에 최첨단 도핑 관련 장비를 공급하고, 24시간 비상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 경기의 약탈 감사가 강화됨에 따라 2014 인천아시아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도핑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실시된 도핑테스트가 약 1500건이었던 반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약 30% 증가한 1920건의 도핑테스트가 계획돼 있다.

인천아시아게임 조직위는 이를 위해 선수촌 1개, 분촌 1개, 경기장 45개 등 도핑관리실 47개소를 설치해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의 도핑 테스트는 국내 유일의 세계반도핑기구(WADA) 공인인 정기관인 한국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DCC)가 담당한다.

자본시장 도핑검사(DCO) 양성 이론 교육 이수자 100여명에 의해 채워지는 검사 시료는 도핑컨트롤센터의 최첨단 분석 장비에 의해 신속하고 정밀한 분석이 이뤄진다.

도핑컨트롤센터는 인천아시아대회를 앞두고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도핑테스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후화된 도핑 관련 분석기기를 교체했다. 또 첨단기술로 업그레이드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를 추가로 도입해 준비해왔다. 이번 도핑테스트 관련 최첨단 장비들은 영인과학이 공급했다.

영인과학 관계자는 "도핑컨트롤센터에 최첨단 장비를 공급한 것은 물론,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사전 기술교육을 진행하는 등 성공적인 도핑 테스트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회 기간 중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장비 이상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기술인력 비상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며 "원활한 도핑테스트를 통한 성공적인 대회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인과학은 지난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 도핑컨트롤센터와 도핑 테스트 관련 장비 공급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도핑지원에 기여한 경험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분석장비 공급업체다.

송영록 기자 syr@

공시 돋보기

승화산업, 포인트아이 구원투수로

17억 들여 제3자배정 유증참여... 2대주주 올라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SH홀딩스로 사명 변경을 추진하는 승화산업이 코스닥 상장사 포인트아이의 구원투수로 나선다. 이 회사는 포인트아이의 제3자배정 유증 참여에 참여해 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추진하는 게임 및 온라인 스포츠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 포인트아이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승화산업은 이날 17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증 참여를 결정했다. 1주당 액면가는 500원이며, 신주 발행액은 기존 주가에 10%의 할인이 적용된 주당 2690원이다.

발행되는 신주수는 보통주 241만6356주로 발행주식 총수(756만80339주) 대비 32%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증대금 납입일은 오는 29일로 유증대금 납입이 완료되면 신주는 오는 10월17일 상장될 예정이다. 이는 1년간 전량 보호예수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승화산업에 비례한 11명이다. 승화산업이 이번 유증 참여를 통해 64만6654주를 배정받게 되면 포인트아이의 현 최대주주인 에코랜드엔컴퍼니(지난 6월말 기준 138만5449주, 지분율 18.31%)에 이어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승화산업은 추가금등과 관련, 지난달부터 2차례에 걸쳐 다방면 주식 취득을 검토 중에 있다고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후 승화산업은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포인트아이 주식 64만 6654주를 총 17억395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승화산업의 자기자본(지난해말 연결 기준, 이후 사유 발생일 현재까지의 증가한 자본금을 합산한 금액) 대비 5.43%에 해당하는 규모로 취득 후 포인트아이 지분율은 7.87%가 될 예정이다. 승화산업 측은 취득 목적에 대해 "당사의 사업다각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화산업은 이날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명 변경을 비롯한 사업 다각화 및 사업 정리를 위한 정관 변경을 예정하고 있다. 승화산업은 이를 통해 기존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포기하고, 게임 및 온라인 스포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이와 관련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한다. 이와 함께 유전공학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및 이와 관련한 부대사업에도 진출한다.

강인호 기자 kangih@



디지털옵틱 제외진단기 48억 규모 터키에 수출

스마트 기기용 카메라 렌즈 전문기업인 디지털옵틱이 터키의 대형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DIRUI RNA'와 48억 원 규모의 심근경색 진단기·카트리지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옵틱은 이번 계약에 따라 DIRUI RNA에 향후 3년 간 심근경색 진단기 150대와 카트리지가 75만대를 공급하게 된다.

앞서 디지털옵틱은 지난 6월 DIRUI RNA에 임상실험을 위한 진단기와 카트리지가 샘플물량을 공급, 터키 내 대학병원에서 임상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재 시장점유율 1위의 글로벌 진단업체의 병원대형장비(COBAS)와 측정시스템 성능 비교시험에서 상관관계수 97~98% 결과를 확인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디지털옵틱 관계자는 "해당 수치는 수익원에 달하는 병원 대형 장비의 성능과 유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소형 진단장비의 효용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향후 터키 심장학회에서 임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급 계약은 카트리지에 대한 허가용 임상 종료후 국내 승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결했다는 점에서 높은 기술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유럽 지역 수출에 필수요소인 CE인식 획득에도 힘써 마케팅 영역을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디지털옵틱이 자체 개발한 심근경색 진단기·카트리지는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인 심근경색의 진행 정도를 소량의 혈액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외진단 장비와 카트리지가. 병원 대형 장비와 같은 방식인 혈액을 시약과 반응시킨 후 세척하는 과정을 카트리지에 구현해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 또 현재 통용되고 있는 POCT 진단시스템의 카트리지에 해당 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한 회사는 디지털옵틱이 세계 최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강인호 기자 kangih@

차량 경량화·친환경차 바람타고 '성장 페달'

SP 종목분석

③1 코오롱플라스틱

코오롱플라스틱이 차량 경량화 가속화와 친환경차 보편화가 진행되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합 소재(LFRP 등)의 개화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개선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코오롱플라스틱은 코오롱그룹 계열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 가공과 판매를 하고 있다. BASE칩 제조와 BASE칩을 원료로 첨가제와 함께 가공하는 컴파운드 사업으로 나뉘며 대표적 수요처는 자동차와 전기전자산업이다.

출발은 산뜻했다. 코오롱플라스틱은 2011년 6월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며 시초가는 공모가인 4300원 대비 60.47% 오른 6900원에 형성됐다.

장밋빛 전망에 팔리를 이어가던 주가 흐름은 2012년 들어 고개를 뚫었다. 3월 8520원에서 연말 5570원까지 떨어졌다. 실적 호조세도 오대 가지 못했다. 2012년 매출액은 2301억원으로 전년대비 9.99%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3.88% 감소한 10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정부에서의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 방침에 따른 수혜 기대가 높았



다. 엄격한 환경 규제로 자동차 연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EP가 금속을 대체하는 경량화 소재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실적은 더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3% 줄어든 2229억원, 영업이익은 87.25% 감소한 13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부진에서 벗어나 재도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P 시장은 그동안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다소 성장세가 주춤했지만 내년까지 2010년보다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발과 차체 경량화가 요구되는 시대 흐름을 반영했을 때 EP 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Capa 증설을 위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수익성 악화의 주요인인 POM 사업 부분의 정상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사업 부분의 고른 실적 개선세가 가능할 것이라 분석이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POM 사업 정상화를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POM 판매량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가동률 유지가 가능할 것이며, 중국 등 저가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미국, 유럽 등 기존 주력국이었던 고수익 시장 위주로 매출처가 재편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정철 기자 jcha@

알리바바 마법?... 큐로홀딩스 "열렸다 유증"

지연코 투자확대 기대... 10억 유증에 3000억 몰려

‘동전주인’ 큐로홀딩스가 10억원 규모의 유증증자에 3000여억원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큐로홀딩스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123만4000주를 발행하는 999960만 원 규모의 공모 증자를 결정했다. 발행 가격은 810원이며 신주권 상정 예정일은 내달 7일이다.

큐로홀딩스는 이번 유증증자에서 청약 경쟁률 298.2063대 1을 기록하며 흥행을 거뒀다. 청약률이 2번 99820.63%에 달한다. 999960만 원 모집에 2980억6914만6000 원이 몰린 것이다.

보통 유증증자를 결정하면 시장에서는 악재로 인식돼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

다. 특히 동전주의 경우 주가가 발행가액 밑으로 떨어지며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큐로홀딩스의 유증증자는 흥행에 성공했을 뿐더러 주가 역시 6.3%나 상승했다.

이 같은 큐로홀딩스의 유증증자 성공은 자금 조달 당시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 상승장이라고 있는 알리바바의 투자 확대 소식이 전해지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큐로홀딩스가 유증증자를 발표한 하루 뒤인 16일 알리바바와 제휴한 소영몰 '한국가'에 큐로홀딩스와 큐로컴이 투자한 지연코가 입점해 있다는 소식이 밝혀지며 지연코는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당시 알리바바의 매거져우 글로벌터틀 부사장은 "한국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큐로컴은 지연코의 지분 11.85%를 보유하고 있으며 큐로홀딩스는 큐로컴의 지분 16.29%와 지연코 지분 0.11%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연코의 성장성을 본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큐로홀딩스에도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eugene@

동성홀딩스 "워런트 540만주 행사 않겠다"

주가안정·주주 가치 제고 위해

동성홀딩스는 주가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보유분 동성홀딩스 신주인수권(워런트) 539만8618주를 만기에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홀딩스가 워런트 불행 행사 시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보통주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약 15%에 해당하는 물량이었다.



동성홀딩스 관계자는 지난 19일 "당사가 2009년 10월 발행한 제1회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워런트의 권리행사 기간이 올 10월 1일 만료가 된다"며 "이에 자사 신주인수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539만 8618주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미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러 "제3자 매각 등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였지만 그 어떤 대안도 주주 가치의 보호 및 강화라는 회사의 기본방침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동성홀딩스의 결정으로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한 미행사 신주인수권 관련 오버행 이슈 해소 및 향후 주식으로 전환

이 가능한 워런트가 사실상 소각됨으로써 기존주식의 가치를 높여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동성홀딩스는 지난 2009년 10월 동성화인텍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산은캐피탈을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으며 그 중 일부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을 산은캐피탈로부터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동성홀딩스는 이 달 말 상장예정인 일반 투자자 행사 분 약 18만8000여주를 제외하면 동성홀딩스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중 앞으로 추가 행사될 수 있는 잔여물량은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ugene@

현대자동차그룹 동행어 사전
동행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P142



국가대표

[Member of the National Team]

☞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경기에 출전하고 활약하는 스포츠팀 또는 선수들을 일컫음

서로 다른 종목이지만 그들에게 '국가대표'로서 같은 꿈이 있습니다
더 많은 선수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아시아를 놀라게 할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양궁,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팀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경쟁력을 키우는 현대자동차그룹 }



동행으로 미래를 펼쳐다

HYUNDAI
MOTOR GROUP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 철강, 건설을 중심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동행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스포츠팀] 울산모비스 피버스 농구단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여자배구단 / 현대제철 남자양궁단 / KIA 타이거즈 야구단 / 현대제철 레드엔젤스 여자축구단 /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배구단 / 현대모비스 여자양궁단 / 전북현대 모터스 FC 축구단